

## 제 6 편 敎育과 行政



## 제 1 장 解放以前의 教育

### 제 1 절 敎學의 胎動

조정에서는 조선조말 憲宗 8년(1842)에 牛島와 加波島에 入耕 허가를 내리니 사람들이 들어와 취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母島에서 들어온 流移民들은 入住 초기에는 생계를 위한 생산활동에 온 정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에 敎學이라든가, 文化라든가 하는 문제는 소홀한 상태였었다. 다만, 進士 金錫麟이 1844년에 入住 정착함으로써 이 섬에 비로소 訓學을 개설하게 되었다. 金進士의 학식과 덕망에 영향을 받은 流移民들은 차츰 후생을 위한 敎學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입주자 중에서 漢文실력을 갖춘 인사에게 의뢰하여 千字文, 小學, 童蒙先習 등 기초 한문을 숙달시켰다. 시간이 흘러 流移民들의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자녀들에 대한 훈학이 절실해져 지역 유지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훈학을 요구하게 되었다. 1900년에 접어들어 母島 사람으로서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訓長을 초빙하게 되었다. 金錫麟은 初試에 합격, 進士가 되고 서울의 申判官 딸과의 戀情이 있어 그 여인에게 胎氣가 있자 大科를 포기하고 落鄕하였는데 이미 濟州성 밖 東光陽에는 처자가 있었다. 마침 그 무렵인 1842년에 牛島起耕을 조정에서 허가하자 1844년 金進士는 申氏夫人과 함께 牛島에 들어와 이 곳을 개척하며 훈학에 힘썼다. 淡水契編 「耽羅誌」에 “金錫麟은 濟州城内人이니 純祖朝에 進士에 的中하다”라고 써 있다.

李源祚목사는 이 섬에 처음으로 入耕허가를 내리면서 流移民들로 하여금 농산물과 해산물에서 얻은 수입금 중 일부는 세금으로 可僕寺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耽羅紀年」에 보면 “令民入懇納稅于司僕寺”라 쓰여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 때 進士 金錫麟은 이 섬 안에서 가장 유력한 지식으로서 稅弊라는 민폐에서 오는 어려움을 알아 牛島民의 편에 서서 이를 감면하여 주는 등 牛島民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였음을 「遺愛碑」를 통하여 알 수 있다.

金進士가 타계한 후 주민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入島起耕 六〇週年, 즉 回甲이 되는 고종 6년 壬寅(1902) 4월에 牛島의 중앙지 동산에 「金進士遺愛碑」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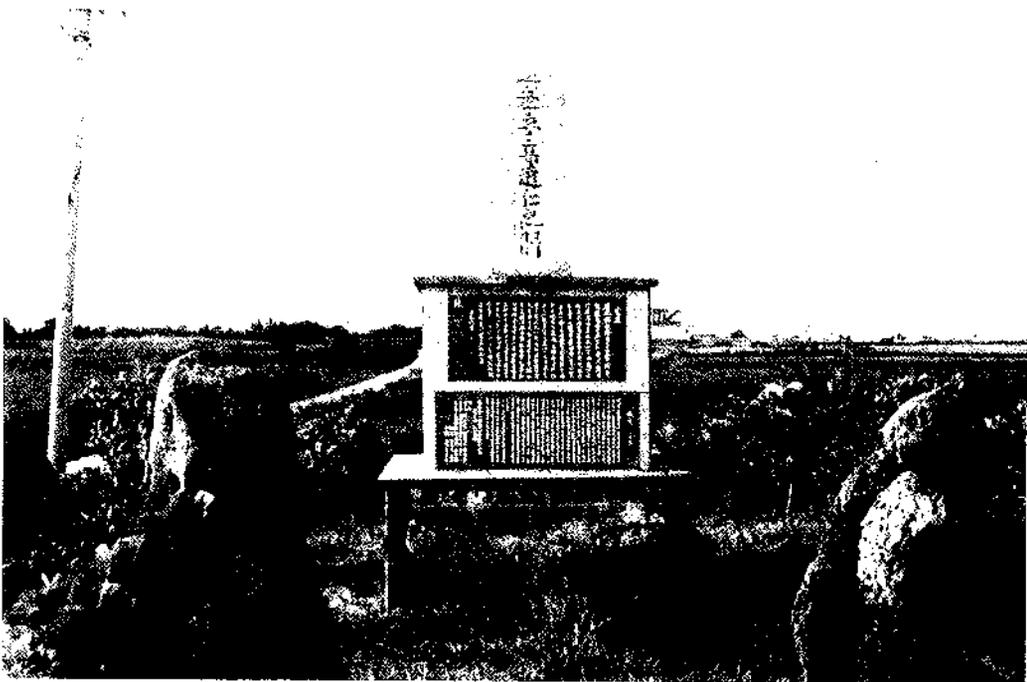


金進士 遺愛碑

건립하여 그를 추념하였다. 과거 매년 실시하여 마을祭를 거행할 때에는 이 遺愛碑 앞에서 온 도민들이 참배하여 그를 숭모하여 온 것이다. 筆者가 수년전 이 비문을 확인한 결과 碑는 두 동강이로 파손되어 原文 5·6字가 애매하여 필자 나름대로 글자를 추정하여 다음과 같이 글 내용을 재현하여 보았다. “進士金公錫麟遺愛碑 緊蒙休息 千秋不朽 惘憶民瘼 減紹稅厚 壬寅四月日” 흔히 故人이

仁愛와 遺德을 기리기 위하여 세우는 비석을 遺愛碑라고 한다. 이 비문의 뜻은 “님에게 힌입은 일, 숨소리 그친 듯하나 千秋에 길이 빛나리, 아픈 民弊로 실의에 찬 백성에게 독한 세금을 감하도록 애썼으니”

어떻든 牛島에 있어서 金進士의 역할은 대단했을 것이며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이 그의 영향과 언행에 좌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哲宗이 승하하기 전년인 철종 13년 壬戌(1862)은 起耕허가가 내린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 해는 三政(田政, 軍政, 糧政)의 문란으로 국내 정치는 더욱 혼란해져 朔州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곧 三南 전지역으로 파급되고 濟州에도 민란이 발생하였다. 이를 壬戌亂 혹은 姜悌儉亂이라고 한다. 大靜人 姜悌儉 金興采 등이 민란을 일으키자 행정은 극도로 문란하여 민폐가 커 이를 기피하기 위해 流移民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孝子 高達仁의 碑

이 민란이 있는 지 2년 후인 高宗 3년(1864)에는 濟州가 大風雨로 흉년이 들

어 牛島로 입주하는 가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규모있는 취락이 형성되었다. 한편, 流移民의 안정된 생활로 정착되고 취락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流移民二世에 대한 교육열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1900년에 이르러 母島 사람으로서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훈장을 조빙하게 되었다. 旌義縣 현청소재지인 城邑 출신으로 훈학하던 漢學者 吳完哲을 조빙하여 후대하고 經典 강술을 의뢰하여 수준높은 敎學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1901년 牛島의 부락명을 「演坪」이라고 명명한 것도 바로 吳完哲이며 1902년에 건립할 「進士金公錫麟遺愛碑」의 문장도 吳訓長의 솜씨로 보아 틀림이 없다. 훈장 吳完哲이 敎學에 힘쓴 결과 牛島民의 성품이 순화되고 교양이 풍부해져 가정과 사회윤리가 점차 확립되었다. 이 무렵 조정에서 孝子 高達仁에게 完文을 내리어 현양된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高達仁은 演坪里 59번지에서 高宗辰의 장남으로 태어나 남달리 孝行을 실천, 광무 9년(1905)에 孝子 完文과 專습이 내려졌는데 孝子碑로 “돈동산”에 세워졌다.

## 제 2 절 永明義熟의 敎學活動

1910년 日帝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으나 牛島의 주민들은 자녀의 교육활동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된 牛島 개척자, 즉 流移民들은 이미 故人이 되었고 다만 二世, 三世들이 의젓한 家長으로서 三世, 四世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三·四世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이룩되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몇몇 유지들이 글방을 만들어 傳來의 방법으로 在來式 漢文書堂에서 한문 및 습자 학습을 익혀 왔다.

그러나 고루한 서당교육을 가지고는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 時代的인 추세와 근대화된 지식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관계로 近代化된 新敎育의 필요성을 절실히 갈망하게 되고 또한 漢文교육은 점차 쇠퇴하게 되어 在來式 서당교육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되었다. 日

帝가 1918년 書堂規則을 공포함에 따라 改良書堂 혹은 改良私塾이란 명칭으로 종래의 漢文 및 習字를 비롯하여 國語(日本語) 算術 등을 추가하여 신식공부를 가르쳤었다.

日帝에 의해 書堂規則이 공포됨에 따라 牛島의 유지들은 즉각 새로운 改良서당의 설립을 서두르게 되어 당시 개량서당 설립은 濟州島司에게 신고하여 개설허가가 내려오면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舊左面誌」와 기타 자료에 보면 “演坪 永明書堂은 1918년 설립, 下牛目洞 都家집에서 개설되었으나 塾長은 未詳이다”라고 밝혀져 있다. 이로써 1918년 5월 10일 上牛目洞의 부락 공회당을 이용하여 永明義塾이 개설되고 初代塾長은 上古水洞 태생인 尹寬仲이며 그의 명의로 濟州島司에게 신고하여 허가장을 받은 것이다. 이 義塾이 개량서당으로서 牛島에 처음 개설된 신식 교육기관인데 후일 이 지역의 초등학교 개설의 母胎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숙장 尹寬仲은 일본사람인 사또(佐藤)라는 교사를 초빙하여 日本語를 가르치려고 하였다. 그 당시 개량 어로법을 도입하려면 塾生들로 하여금 日本語를 익혀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부임한 佐藤교사는 우리의 말과 글을 전혀 알지 못한 관계로 어린 塾生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수모만 당하고 떠났다. 그러나 義塾 초창기에 역임한 교사 金應斗, 金炳勳, 金智昊 등은 당대 유명한 제주의 선각자들이며 民族주의자들이어서 塾生들이 이들로부터 받은 영향은 지대하였다. 뒷날 牛島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과 또 海女の 抗日운동에 앞장선 牛島의 저항인사들도 모두 永明義塾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교사 金應斗는 濟州城內 龍潭 태생으로 「제주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진 명사이다. 2년간 재임한 후 제주성내에 개설한 私立明新학교 초대교장에 취임하여 맹활약한 바 있다. 그의 뒤를 이어 부임한 金炳勳, 金智昊 양인은 모두 朝天리 출신으로 철저한 排日派 인물이었다. 이 때에 배출된 塾生들은 高漢權, 金仁秀, 李大奎, 康寬順, 宋仁錫(表善人), 高元瀚, 金允玉, 姜太淑 등이다. 더구나 周興洞의 姜太淑은 앞으로의 세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女兒들의 입학을 역설하였으니 이로써 일부 여자들이 修學했으나 잠수질을 시키려는 부모의 이해 부족으로 종퇴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1926년 6월 朝鮮總督府令에 의해 이미 공포한 「書堂規則」을 개정하여 서당은 그들의 지도 감독이란 명목으로 더욱 악랄하게 규제하였다. 그 개정요지는 종전 牛島에게 신고 제출만으로 서당의 개설이 가능했으나 1929년부터 道知事의 감독 하에 규제하도록 되어 매우 까다로운 상태였다. 아울러 총독부에서 발행한 日語와 算術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적당한 방법으로 일본의 國民道德 교과인 修身까지 가르치도록 강요당하였다.

1932년 접어들어 全羅南道 道知事의 통첩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원으로 하여금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校下의 서당을 시찰 지도함과 동시에 「忠良한 日本國民」, 소위 皇民化敎育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령은 1面1校란 제도에 따라 舊左面에는 오직 金寧에 있는 舊左公立普通學校만이 있어서 이 학교의 敎員이 가끔 牛島에까지 와서 永明義塾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였다.

그러므로 1918년 濟州島司에게 신고하여 永明義塾을 개설한 후 1928년까지 10년간을 永明의 전반기로 한다면 1929년 전라남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1938년 演坪私立尋常小학교가 개교되기 직전까지 10년간을 永明의 후반기로 보는 것이 옳겠다. 1929년 永明의숙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증축하고 校勢를 확장하는 데는 독자가 金允玉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 牛島의 三陽洞 태생인 金允玉은 永明의숙 초기의 塾生으로서 스승 金應斗의 교훈에 감화되어 성장 후 많은 私財를 내놓아 牛島의 敎育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上牛目洞 태생 金海日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같이 好事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日帝로부터 탄압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1931년 9월 31일자 「朝鮮日報」의 “濟州경찰이 2개 學院 폐쇄, 주민측에서 非難”이란 제목하의 기사를 옮겨 보기로 한다.

舊左嶽 演坪里는 제주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나 戶數가 450여호이며 인구가 2천여나 된다. 해마다 학령아동이 1백여 명이 넘는 현상으로 在來의 永明義塾이란 유일한 敎育기관이 존재하고 있을 때까지는 그들을 수용하기에 문제가 아니어서 아동敎育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나 이 유일한 敎育기관이던 永明의숙이 民들의 피쉬인 열성으로 근근히 신축한 70여평의 校舍가 재작년 5월 비바람에 애처로이 도괴되어 버리고 그에 덮쳐 이 永明義塾을 중심으로 한 1·2區의 구역적 쟁부가 몇 악질분자의

책동으로 쫓겨되어 장구한 시일을 끌었다. 이에 기인하여 그 존재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자 母校를 잃은 천진한 아동들이 배울 길을 잃어 눈물을 머금고 도로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이를 개탄하는 學父兄들은 앞으로 다시 통일적 교육기관이 부흥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단 하루라도 사랑하는 子女를 놀리지 않으려고 부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本里 下洞에 下洞學院이 설립되었고 뒤이어 下牛目洞學院 등이 설립되어 두 해 동안이나 교수를 계속해 왔다. 지난 8월중에 城山浦경찰관주재소에서 本里 區長과 敎員으로 하여금 속히 인가를 받으라는 공문이 왔으므로 前記 下洞學院에서는 즉시 敎員 高元翰을 특파하여 소관 면사원에 인가원을 제출하고 신학기인 제2학기의 교수를 진행중이었다.

지난 9월 21일에는 돌연 城山浦경찰관주재소의 경찰관 전원이 총동원 당지에 출장하여 전기 2개 學院의 敎員들을 소환하여 認비가 날 때까지 절대로 못한다고 폐쇄를 엄명하고 떠났다. 다시 배울 기회를 잃은 수백명의 아동이 영문도 모르고 落望의 표정으로 街路를 방황하는 꼴은 뜻있는 인사로서는 참지 못할 현상이었다.

이에 학부형들과 사회측에서도 벌써 허가원을 제출하였으니 앞으로 곧 허가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 설령 허가가 없더라도 演坪리의 일반정세와 섬이라는 지역관계로 특히 부근 학교에도 통학할 수 없는 교통관계 등을 참작하여 默許라도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단호한 조처를 하는 것은 적어도 교육장려를 표방하는 당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 하여 불평과 비난이 자못 높다고 한다.

이러한 기사내용으로 보아 당시 日帝가 얼마나 교육활동에 대해 관여하고 주민 위에서 군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29년 「書堂規則」이 개정되어 서당교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濟州島内の 서당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朝鮮총독부의 자료 제29집 「生活實態調査 濟州島」를 살펴보면 全南 도지사로부터 새로 인가된 義塾은 25개에 불과하였다. 보통 1개 의숙에 敎員이 1명 내지 2명인데 오직 永明의숙만은 敎員이 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당시 학생수는 50명 이상인 義塾이 13개교로서 과반수가 되며, 100명의 생도가 있는 곳은 新進의숙과 以文의숙이고 120명이 재학하는 普成의숙과 普昌의숙이 있었다. 牛島의 永明의숙은 100명이나 되어 가장 많은 생도수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濟州에서 가장 규모가 큰 義塾이었다.

당시 학습교과는 修身, 國語(日本語), 朝鮮語 및 漢文, 算術, 博物, 作文, 地理, 歷史, 音樂, 體操 등을 4년 과정으로 수학하였다. 塾生들이 학력수준에 따라 甲班, 乙班, 丙班, 丁班 등 4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교사 4명이 분담 학습 지도에 임하였다. 학부모들의 의숙에 대한 물심양면의 후원도 대단하였으며 아울러 재직하는 敎員에 대한 존경과 우대는 타지방보다 좋은 조건이었다. 그런 관계로 우수하고 능력있는 교사를 초빙할 수가 있었다.

이 永明의숙의 교사를 역임한 인사로는 細花리의 金浩奎, 牛目洞의 金南錫, 漢東리의 朴性周, 周興洞의 高漢權, 錢屹洞의 康寬順, 東天津洞의 申才弘, 西天津洞의 高泰柱, 飛揚洞의 孔順根, 牛島출신 金太權, 高元瀚, 姜必柱, 禹才權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부임하여 塾生들의 훈도에 열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1938년 私立演坪尋常小學校가 설립 인가되자 일부 교원은 소학교 교사로 재임용되어 이 지방 교육에 기여하였다.



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기념비들은 우도 선인들의 교육열을 반영해 주고 있다.

永明義塾은 上·下牛目洞 중간지점에 임시 校舍로 草家三間을 마련해 1915년 개설되었다. 당시 의숙 개설에 따른 篤志家로서 金備保, 金文善, 高在俊,

尹寬仲,李大奎,李士奎,金熙錫,金基鈞 등을 들 수가 있다.

초창기 시절에 在任한 교사는 金應斗, 金炳勳, 金智昊, 金浩圭 등이 1919년 까지 근무했다. 다음 1921년부터 1929년까지의 申才弘, 1922년에 1년간 재임한 康現斗, 1923년부터 1927년까지의 吳文卿, 1923년에 1년간 재임한 玄昌浩 등이 있었다. 1924년 私立尋常小학교 인가 신청에 필요한 校舎 신축을 착공하였으나 認可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 해에 재임한 金俊煥은 후일 滿洲의 間島로 건너가 龍井大成中學을 졸업하고 中國 共產革命에 가담했다.

1925년 교실이 완공되었으나 普通학교의 인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 때의 교사로 는 康寬順, 金聲五, 尹德寶, 金太權 등이고 이들은 이듬해 사임하고 떠나니 후임으로 吳文卿, 高元瀚 등이 부임했다.

이 무렵 申才弘의 부인 張永禮(제주성내 사람)가 여교사로 재임한 일은 특기 할 만한 일이다. 1928년 이 때의 마지막 졸업 塾生은 모두 13명인데 이 가운데 金萬衡, 梁奉倫, 高性革 등 3명은 私立下道보통학교에 편입한 후 6년 과정의 초등교육을 마쳤다.

이 증언에서, 永明의숙의 처음 개설시기에 관한 언급에 대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자료에는 모두 1918년 처음 開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증언 으로 보아 1915년 개설시는 無認可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1918년 「書堂規則」이 개정되자 正式認可를 받아 운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 3 절 私立演坪尋常小學校

日帝는 그들의 떠들고 주장하는 이른바 「新東亞의 건설」이나 「皇國臣民의 육성」이나 하면서 전시체제에 부합한 교육정책을 펼치며 주민에게 강요하였다. 이를 강행하기 위하여 1938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는 「제3차 朝鮮教育令」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육령 제1조를 보면 “小學校는 국민도덕의 함양과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忠良한 皇國臣民을 육성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학교의 성격을 뚜렷이 밝혔다. 제2조에는 “소학교는 尋常소학교와

高等소학교로 나눈다.”로 되어 있다. 이로써 牛島에는 永明의숙을 모태로 하여 비로소 정규학교로서의 인가 신청을 제출한 바 1938년 4월 16일 私立演坪尋常小學校가 개설 허가를 받게 되었다. 즉 演坪리 1402번지 지금 국민학교 자리에서 개교를 보게 된 것이다.

日帝下인 1939년 濟州島廳에서 발간한 「島勢要覽」에 의하면 “私立演坪심상소학교는 昭和13년(註: 1938) 4월 16일 인가되고 수업연한은 4년이며 학급수도 4, 교원도 4명이었다. 아동은 남자 212명이고 여자는 13명 도합 225명이었다.”고 밝혀져 있다.

이 牛島에 私立심상소학교가 개설되던 1938년 舊左面 관내의 초등교육기관은 타읍면보다 量的인 면에서 우세하였으며 교육활동도 활발하였다. 他邑面에서는 公立小學校가 1개교이며 私立小學校는 1개교가 있을까 말까 하는 상태이었다. 그런데 舊左面에 있어서는 1923년 7월에 설립된 私立下道校와 公立舊左校(현 김녕교), 그리고 1924년 11월에 杏源의 普明義塾과 月汀의 永信의숙을 합병하여 私立中央校(현 구좌중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또 1938년 5월에 公立細花校가 설립되고 동년 2월에는 2년제인 松堂簡易학교가 설립을 보게 된 것이다.

이 演坪尋常小學校는 당시 舊左面長이었던 全仁洪이 설립 책임자가 되고 永明의숙의 교원이었던 향리출신 高泰柱, 高元翰 등을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이 학교의 초창기 기반을 공고하게 확립하였다. 1938년 9월 23일 高泰柱를 교장사 무취급으로 발령하여 운영하다가 1939년 4월 14일에 翰林面 今岳 출신 姜土埜를 정식교장으로 초빙하니 학교의 교육체제가 본체도에 오르게 되었다. 姜교장이 3년여 동안 재임하고 전출함에 따라 高泰柱가 제2대 교장으로 1941년 6월 30일 부임하여 4년여 근무 중 조국광복이란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永明義塾이 발전적으로 尋常小學校로 승격됨에 따라 의숙에 재학하던 甲班의 塾生 54명은 小學校 4학년으로 입학한 후 1939년 3월 25일 제1회 졸업생 51명을 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尋常小學校는 修業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으나 당분간 4년으로 존속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4회 졸업생(1942년 3월 25일)까지는 4학년으로 학업을 마치게 되어 있었다. 1942년 4월 6년제로 승격됨에 따라 제5회 졸업생부터는 6년간을 통하여 학업을 마치게 되었다.

이 때의 학습 교과는 修身, 國語(日本語), 算術, 國史(日本史), 地理, 理科, 職業, 圖畫, 手工, 唱歌, 體操 등이며 여자 생도를 위하여 家事 裁縫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女先生의 不在로 가르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日帝는 해가 거듭할수록 日本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內鮮一體의 교육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국어(日本語)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日本정신의 채득을 꾀하고 皇國臣民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이른바 皇國臣民化를 위한 교육전략이 한국인을 日本人化하고 또 전쟁수행을 위해 식민지정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였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할 즈음에 日帝의 皇國臣民化의 정책에 의한 민족말살 정책은 한국인의 성명을 없애고 日本式인 姓과 이름을 짓도록 하는 創氏改名이 1940년 강압으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演坪校에서도 高선생, 金선생하고 부르던 것은 岡本(모까모도)교장, 高本(다까모도)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모든 생도들도 이런 식으로 姓名을 바꾸어 日本人이 되게 하였으나 겉으로는 일본 사람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속에는 배달겨레의 魂이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永明義塾이나 演坪심상소학교 혹은 母島의 초등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牛島 출신 아동들은 당시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인 濟州公立農業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일부 학생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퇴되거나 육지부로 전학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濟農을 졸업한 인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1921년 졸업생 高漢權, 1922년 졸업한 金仁秀, 高元瀚, 1924년 졸업한 康寬順, 1925년 졸업한 金允鍾, 1926년 졸업한 李斗玉, 高泰柱, 1940년 졸업한 高雲晶, 1943년 졸업한 洪吉三 등을 들 수 있다.

## 제 4 절 演坪국민학교

1941년 3월 私立演坪심상소학교란 校名이 私立演坪국민학교로 변경되고 또 2년이 지나서 1943년 3월에 公立演坪국민학교로 설립 주체가 변경되었다. 실은 朝鮮총독부의 제4차 改定教育令에 의거 小學校令을 國民學校令으로 바뀌어져

모든 小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라고 개정하였다.

그들의 이른바 大東亞전쟁, 즉 太平洋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日帝는 최후의 수단으로 「敎育에 관한 戰時非常措置令」을 공포하였고, 학교 敎育은 초긴장 상태로 돌입되고 숨막히는 계절이 다가오게 되었다. 일제는 1944년 戰勢가 불리해지자 동년 2월 「決戰非常措置要綱」을 발표하였다. 막바지에 이르는 전쟁에 대비한 최후의 발악으로서 소위 聖戰을 위한 國民總動員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 敎育의 부재상태라는 극한점에 도달하여 戰時體制에 매몰되는, 敎育의 일대 受難期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演坪국민학교 아동들은 근로봉사라는 강제 노력동원에 치중하였으며 月月火水木金金이라 부르며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매일 강제 동원되어 防空壕과기, 전쟁수행을 위한 폐품 헌납, 또 농산물 생산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때는 정규敎育은 외면당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노력동원을 강행하여 참으로 처참한 노예敎育이나 다를 바 없다.

1945년 유난히도 무덥던 8월, 日帝는 여름방학도 없이 등교하여 강제노동을 시켰다. 동년 8월 15일 아침 조회시에 교사들은 日本天皇이 중대방송을 한다는 것이며 天皇으로서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여 말해 주었다. 昭和天皇이 美·英·中·蘇를 비롯한 연합국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한다는 방송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牛島에 주둔하고 있던 日本軍 부대를 제외하고는 라디오라고는 한 대도 없었으니 무슨 변고로 天皇이 방송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아동들은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祖國光復의 감격과 환희도 그 날에 못 느끼고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달되어 잃었던 조국을 다시 찾았음을 알게 되었다.

1938년 개교된 후 제7회 졸업생까지 총 312명(남자 301명, 여자 11명)이 배출되었다. 제1회로부터 제3회까지는 사립심상소학교 명의로, 제4회 제5회는 사립국민학교 명의로, 제6회 제7회는 공립국민학교 명의로 졸업하였다. 그리고 제1회는 高泰柱 교장서리시에, 제2회 제3회는 姜士珪교장시에, 제4회부터 제7회(1945년 3월 25일)는 高泰柱교장시에 졸업하면서 日帝時代를 마감하게 된다.

各回期別 졸업생수는 제1회 남자 51명, 제2회 남자 36명, 여자 6명 도합 42명

이고, 제3회 남자 53명과 여자 2명 도합 55명, 제4회 남자 37명, 제5회 남자 36명과 여자 2명 도합 38명, 제6회 남자 35명, 제7회 남자 58명 여자 1명 도합 59명이 배출되어 男女 性比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演坪校가 처음 개설된 후 학교 부지의 회사 및 시설과 성금 등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을 살펴보면 城山浦의 玄承五, 下牛目洞의 鄭贊玉 高在春(女) 康炳俊 文德珍, 下古水洞의 尹東玉, 高雲橋 高雲松 高西淑 姜永根, 迎日洞의 金昌海, 周興洞의 禹奉國 梁官杓 梁成龍, 飛陽洞의 姜基厚 孔順根 高光辰 崔德基, 부부인 孔達奎와 李文娥, 西天津洞의 金斗潤 尹在植, 三陽洞의 韓斗玉 등이었다.



1941년 4월 연평국민학교에 유공한 인사들을 위해 세워진 기념비. 공순근, 정찬옥, 한두옥, 최덕기 제씨들의 이름이 선명하다.

이와같이 有功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학교 정문 옆 路上에 기념비를 세워 길이 주민들로 하여금 후보받을 수 있게 하였다. 尹東玉 高在春(女)의 기념비는 건립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가장 오래된 바문인 것으로 보아 永明義塾 당시의 有功碑로 보이며 그 이외의 바문은 尋常소학교가 인가된 이후의 것이다. 이

碑文은 거의 1940년 11월과 1941년 4월에 건립하였는데 私立演坪尋常小학교 건립자는 이와지마(岩島義夫)라고 되었는데 岩島義夫란 당시 舊左面長인 全仁洪의 창씨개명 즉 일본식 이름이다.

## 제 5 절 牛島 三大天才의 활동

1920년대 후반 우리 나라에는 社會主義 사상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無政府주의 사상도 폭풍처럼 몰아쳐 왔다. 이제까지 민족주의로 일관하던 抗日운동의 방향이 左傾이란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濟州島에도 192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사조가 밀어닥쳐 비밀리에 확산되었다.

따라서 牛島에도 永明義塾의 교사 金應斗 金智昊 등 民族主義者가 재임하면서 은연히 학교안에서 排日敎育을 주입 지도하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사상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으로는 牛島에서 가장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습득한 신진 엘리트 申才弘의 抗日意志에 공명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申才弘은 어떤 인물인가? 1899년생으로 1925년 5월 12일 牛島 禹斗元의 집에서 李敬弼목사에 의해 처음 洗禮를 받아 기독교에 귀의하였다. 이후 濟州 城內로 가서 新進청년들과 또 基督教의 인사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이기풍목사가 본도에 처음 개설한 城內교회에 부설한 永興學校의 교사로서 맹활약하였으니 이는 申才弘이 濟州公立농업학교에서 수업하다가 上京, 中等敎育을 받은 지식을 가지고 生徒들로부터 실력있는 교사로 숭배받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申才弘은 母島의 留學生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면 이들과 접촉, 抗日의 의지를 펼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演士로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한편 1930년 3월 細花里 文道培의 집에서 抗日비밀결사인 「革友同盟」 결성을 주도, 이듬해 2월 姜昌輔, 金順鍾, 金準煥 등과 함께 「제주도 사회운동자 비밀간담회」를 개최, 新進青年을 조직화하여 침략자 일본에 저항하기로 하는데 앞장섰다. 이 무렵 海女抗日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소위 그 배후 조종 인물로 지목되어 1932년 3월 日帝 당국에 검거되었다. 당시 新聞記者의 신분으로 5년형을 선고

받아 光州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해방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신음하다가 病死되었다는 說과 또 江原道에서 살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說이 있다.

「革友同盟」의 핵심적 인물 姜昌輔는 龍潭리 태생으로 이 抗爭의 주동 책임자였는데 船上의 화물로 가장하여 日警의 눈을 피해 渡日, 그곳에서 즐기치게 항일운동을 지하에서 전개하였다. 그러자 실제의 주모자로 지목받아 申才弘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申才弘은 舊左面 細花里에서 1930년 3월 1일 3·1節 11주년 기념일을 택하여 비밀결사 「革友同盟」을 조직하면서 농림부의 책임을 맡았으며 역시 牛島태생 康寬順은 청년부를 맡았었다. 또 동년 9월경에는 「제주島 社會主義者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밀회의 끝에 제주도를 양분, 東部는 申才弘이, 西部는 張鍾植이 지역책임을 맡았다. 당시 소위 城山浦海女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日帝당국에 저항하면서 농민과 해녀를 革友同盟 조직으로 확대하는 데는 申才弘의 역할이 대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牛島에도 이 조직의 뿌리를 심기 위해 申才弘 자신이 책임자가 되고 동지 康寬順은 연락부를, 金聲五는 청년부를, 高子華는 농림부를, 高元瀚은 여성부를 책임맡아 抗日 비밀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그 후 中日戰爭이 발발하자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終達里 「時事報導강연회」 석상에서 排日反戰사상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革友同盟抗日운동」에 가담된 인사들은 소위 비밀결사에 가입, 그리고 결사조직 목적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행위와 치안방해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의 애국투사를 체포 구금한 것이다.

東亞日報 1932년 3월 4일자에 “濟州海女사건 後聞, 대모사건 取調와 운동자 協議會 탄로”라는 제목하의 기사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濟州島海女사건은 수차의 대모사건과 검속자 탈환으로 또는 檄文사건으로 한참동안 世人의 耳目을 놀라게 한 후 1백여명의 검속자를 내었다. 연일 준열한 취조를 거듭해 오던 바 사건의 일단락을 지운 셈이다.

지난 수일전에 下道里 해녀 夫春花(25) 夫德良(23) 金玉蓮(23) 등 3人を 제외하고는 전부 석방되고 남자 청년으로는 文武炫 愼允珍을 석방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갔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1930년 9월 21일경 細花리 金時和 집에서 청년 10여 명이 간담회 끝에 비밀결사 「民衆운동자協議會」를 발의한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번 海女사건에도 어떤 단서가 포착된 듯하다는데 지금까지 검속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下道里……金順鍾, 吳文奎, 夫升琳, 吳銀浩, 金麗贊, 吳斗萬, 康一龍, 韓文玉, 林丁丕 등 9명

細花里……金甲天, 金時坤, 金時和, 金三龍, 文益培, 文道厚, 文道五, 李斗一 등 8명

演坪里……金聲五, 康寬順, 禹奉俊, 李斗三, 高子華, 鄭贊植, 申才弘, 孔德奉, 高基昌, 姜熙俊, 梁泰潤, 尹大弘, 高漢祚 등 13명

終達里……韓香澤, 韓基澤, 韓元澤, 蔡在五, 康泰一, 高四萬, 康宗遠 등 7명

당시의 어린 記事로 보아 海女抗日운동이 비록 面소재지 細花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저항주체인 海女가 가장 많은 곳이 牛島이며 또 이 저항운동의 後見者들도 절대다수가 牛島人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지금까지 밝혀진 「海女抗日운동」의 새로운 照明이 절실히 요구된다.

牛島 사람으로 구속된 13명은 후일 日帝에 굴복 동화되어 附日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오직 은둔생활로 일생을 보낸 이도 있었다. 다만 大邱覆審법원에서 공소되어 1933년 6월 5일 刑이 확정되어 복역한 牛島의 志士는 申才弘, 康寬順, 金聲五 등 3인이었다.

申才弘은 당시 32세인 지방과견 新聞記者로서 소위 「海女사건」의 首長이었다. 징역 5년형을 받아 光州형무소에서 복역한 뒤 귀향, 끝까지 日帝에 굴하지 않고 檀紀年號를 쓴다든가 음력 10월 3일 開天節 기념일에는 이웃 후진들을 모아 민족혼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동지 康寬順은 당시 25세이며 역시 新聞記者로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아 光州형무소에서 복역하고 귀향했다. 그는 문장력이 뛰어나 康哲이란 筆名으로 문예활동을 펼쳤으며 그가 지은 「海女の 노래」는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본시 永明의숙을 졸업하고 1926년 濟州公立農業학교를 졸업한 신진청년으로 服役을 마치고 귀향, 역시 永明의숙의 교사로서 인기가 대단했으나 日帝당국의 비행이 심하자 咸鏡北道 淸津으로 멀리 부부가 함께 떠나버린다. 滿洲 閔島지방을 드나들며 큰 뜻을 펼치려 했던 차에 日警의 모진 고문애

언은 刑毒과 옥중생활에서 얻은 병으로 1942년 여름 34세를 일기로 요절하였다. 淸津에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옮겨 고향에 안치시킨 부인 金有生女씨는 후일 遺腹女를 낳아 그의 血肉을 이었는데 강길녀(55세)로 우도면 천진리에 시집와 살고 있다.



康寬順의 生存時 모습과 墓

康寬順은 그 부인의 역할이 대단하였다고 전한다. 1930년대 전후를 기해 도내의 抗日투사들이 가장 은밀한 장소로 牛島에서 자주 회합을 가졌는데 모슬포의 吳大進, 翰林의 李益雨, 細花의 文道培, 龍潭의 姜昌輔, 新桃의 夫泰煥, 朝天의 金堯煥, 終達의 韓香澤, 下道の 金順鍾과 吳文奎 등이 자주 출입하였다. 이들의 牛島會合은 첫째 牛島가 은밀한 장소로써 일제당국의 눈을 피하기가 용이했으며 둘째 이들의 首長格인 申才弘이 牛島에 살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康寬順의 夫人이 정성드려 접대해 주는 데 모두 호감을 갖고 있었던 때문이다.

또 同志 金聲五는 牛島의 錢屹洞 태생으로 사건 당시 21세인데 집에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3년 6개월 동안 光州형무소에서 복역하고 귀향했으나 失意속

에 방황하고 있었다. 日帝의 尾行이 심하자 동지 康寬順의 뒤를 이어 威北 淸津으로 건너가 만나 미래를 기약하고 滿洲 間島지방에 있는 東興中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후 두 同志는 元山에서 실시하는 航海士 乙種시험에 응시하여 共히 합격, 康寬順은 건강관계로 항해활동을 포기했으나 金聲五는 항해사로서 명성을 날렸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釜山에 거주하면서 일류 船長으로 전국에 알려져 大成하였다.

이와 같이 申才弘, 康寬順, 金聲五 등 3人是 당대의 인걸로서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牛島民에 대한 계몽활동과 문화활동에 기여한 世稱 牛島의 三代天才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 제 6 절 文化 활동과 啓蒙운동

해가 거듭할수록 日帝의 탄압이 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뜻있는 新進靑年들에 의해 文盲퇴치 활동, 夜學을 통한 民衆계몽운동, 연극활동 등을 통해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표면상으로는 民族해방을 표방할 수 없어서 農漁民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自生적인 조직이 움트게 되었다.

한편 뜻있는 牛島人 중에는 演坪靑年會同盟, 海女會, 農民會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 뚜렷하게 알려진 모임이 있었으니 1931년에 조직된 演坪 農民社였다. 流移民 二世, 三世들이 주축이 되어 선조들의 개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의도로 조직된 결사이다. 뿐만 아니라 牛島 주민의 自生的 自律的 모임으로 지켜 내려온 鄉約을 가지고 復古的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었다.

이 農民社의 結社의 목적은 첫째 농민의 권익옹호를 기하고, 둘째 농민을 계몽하여 생활을 향상시키고, 셋째 牛島의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직 책임지를 보면 위원장에 李大奎, 그리고 집행위원은 康京鎬의 7명으로, 또 감사위원장은 金熙邦이며 위원으로는 梁寬杓, 車斗玉 등으로 되어 있다. 이 演坪農民社에 대해서는 濟州道誌에 밝혀져 있다.

이에 앞서 牛島 테생으로 청운의 뜻을 품고 母島 혹은 서울에서 유학생생활을 거쳐 귀향한 신진 청년층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들은 이미 急進思想을 수용하고 잠자던 주민들을 일깨운 민중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그 第一號가 愛國 청년 申才弘이니 그는 일찌기 濟州公立農業학교에 입학한 牛島人의 第一號이기도 하다. 1899년생인 申才弘은 濟農 1년을 수료하고 上京하여 중등교육을 마치고 귀향하면서 일찍부터 선각자적인 활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또 申才弘보다 7세 연하로서 1926년 濟農을 졸업한 康寬順의 천재적인 계몽활동은 牛島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니 이는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사실이다.

申才弘과 康寬順 두 사람은 우도의 열혈 청년을 결속시키고 획기적인 새 바람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다. 보다 체계적인 民衆啓蒙을 펼치기 위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그런 연후 金聲五, 高子華, 高元瀚, 禹奉俊 등과 함께 夜學所를 만들어 주민 가운데 남녀 文盲者를 가릴 것 없이 한글 千字文, 算術 등을 가르치며 은연히 민족주의 이념을 일깨웠다. 그 동안 배움에 굶주렸던 주민들은 農閑期를 이용하여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였다. 이러한 新銳 靑年들의 희생적인 활동에 박수로 환영하였으며 또 이상향 건설과 신생활 운동에 전도민의 호응과 동참이 있었다. 가히 牛島는 1920년대 後半에 걸쳐 黃金期, 즉 문화의 黎明期를 맞이한 듯하였다.

이 운동의 首唱者이며 지도자인 東天津洞 출신인 申才弘은 비상한 재능을 가진 인사로서 牛島의 유일한 개당서당인 永明義塾의 교사였다. 또 은사로 제임한 바 있는 金炳勳, 金應斗, 金智昶 등의 감화를 받았었다고 보아진다. 이들 교사는 모두 당대의 유명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申才弘은 신학문을 최초로 섭취한 신진청년으로서 漢學에서 조예가 깊었으며 서울의 文物을 체험한 후 귀향하였다. 처음에는 大靜 慕瑟浦의 光鮮義塾에서 교편을 잡았었다. 이 光鮮義塾에는 己未 3·1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기독교 신자 姜圭彦이 함께 교사로 제임하여 또 姜圭彦은 申才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었다. 申才弘은 記者모서 총사도 했으며 향리에 돌아와 永明의숙의 교사로써 牛島民을 일깨우면서 민중계몽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는 牛島人으로서 맨먼저 基督教 신자가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민중계몽운동과 사회봉사운동에 목적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改良을 급진적으로 실천하려는 데서 日帝로부터 감시와 비행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또한 申才弘과 함께 牛島의 수재로서 쌍벽을 이루는 인사가 있었으니 그가 곧 錢屹洞 출신인 康寬順이었다. 그는 牛島의 증흥을 시도하는 선봉장으로서 특히 文學的인 소질을 갖춘 多藝多才한 청년이었다. 창작활동을 통하여 또는 각본을 직접 지어 素人劇을 연출하며 주민들을 제공하기로 하여 인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그가 作詞하고 행진곡조로 불리었던 「濟州島 海女の 노래」는 당시 牛島안에서만 불리어진 것이 아니라 濟州 전역과 육지 타지방에 출타한 海女들에 의해서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1.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불쌍한 살림살이 세상도 안다.  
추운날 더운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불결 위에 시달리는 몸
2.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우는 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짓는다.  
하루 종일 해업치나 번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룬다.
3.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하고  
온 가족 생명줄을 등에다 지어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各處 朝鮮 對馬島로 든별이 간다.
4. 배움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 놈들은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도다.  
가없는 우리 海女 어데로 갈까.

이 노래는 日帝 암흑기에 노민들뿐만 아니라 男女老幼 할것없이 온 민족의 悲嘆을 대변하는 절규이었다. 당시 방황하는 겨레의 심정이 소박하고 진솔하게 표현되어서 사실 「牛島의 노래」로 日帝의 눈을 피해 열창하면서 恨을 읊은 노래였

다. 祖國光復 이후에는 제3절의 ‘各處 朝鮮’이란 대목을 ‘機蔚山’ 즉 경상남도의 ‘機張’과 ‘蔚山’으로, 또 제4절의 ‘저놈들의 착취기관’을 ‘왜놈들의 착취기관’으로 고쳐 오래 불러져 왔다.

結言하건데 牛島는 사람이 살기 시작한 데서부터 150여 년이 된다. 이때부터 조국광복전까지 우도에서의 敎育활동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조국 광복 이후의 敎育활동은 달리 언급될 것이기에 본 장에서는 언급을 피한다. 流移民 一世들이 황무지를 일구어 농토를 만들고 풍부한 수자원을 획득하면서 生業에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자 당장 二世의 敎育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럴 즈음에 金錫麟의 입주는 敎育 문화활동에 새로운 기운을 움트게 하였다. 이후 재래식인 書堂을 통한 訓學활동은 계속되었으며 1900년에 와서 漢學者 吳完哲을 母島에서 초빙해 온 데서 牛島의 敎育활동은 中興期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10년 日帝의 침략으로 改良書堂 즉 私塾이란 형태가 태동하게 되자 牛島民의 합의로써 1918년 섬 중심부에 永明義塾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38년까지 改良書堂으로 유지해왔으며 이 해에 私立演坪尋常小학교로 승격 개교됨으로써 정규교육기관으로 이 지역의 敎育에 기여하면서 公立학교로 개편하였다.

## 제 2 장 解放以後의 教育

### 제 1 절 연평중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의 활동

일제 36년의 질곡에서의 해방을 맞은 우도의 경우 제주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적 여건 때문에 여타의 초등학교 설립운동 같은 것은 없었으며 기존의 연평국민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해방 이후의 시대적 교육요구에 응하였다. 1918년에 개설된 영명의숙을 모태로 하는 연평국민학교는 1938년에 개편된 사립연평심상소학교의 연장선에서 해방과 더불어 연평공립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50년 6월 1일 정식으로 연평국민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3월 1일부터 연평초등학교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명의숙의 정확한 설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는데 1918년이라는 기록과 1929년이라는 기록이 혼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평국민학교의 개교 연대에 대한 기록도 확실한 것이 없다. 다만 사립연평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알려져 있는 高泰柱의 이력을 참고해 볼 때 그가 1917년 4월 1일부터 1923년 3월 25일까지 6년간 사립연평보통학교에 재학한 것이 확실하다면 연평국민학교의 개교 연대는 1917년이라는 말이 된다. 또한 고태주에 앞서 구학분을 배운 3회 선배가 있었다는 말을 참고해 볼 때 따라서 영명의숙의 설립 연대는 1914년이 될 것이다.

또한 영명의숙이 일종의 개량서당임을 감안해 볼 때 개량서당의 전 단계인 전통서당의 존재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전통서당 유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 명

칭은 밝혀낼 수 없었지만 그 존재여부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우도에서도 일찍부터 초등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우도의 근대교육이라는 것이 그 근본에 있어서는 전통교육과 연계되어 민족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내의 여타의 학교들이 해방정국의 복잡한 이데올로기 각축에 몸살을 앓았던 대신 연평국민학교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우도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1930년대 이래 사회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없으며 다른 무엇보다 우도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된다.

대신에 우도의 교육적 열의나 진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은 1954년에 개교한 연평중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우도의 경우도 주지하다시피 일찍부터 초등교육이 이루어져왔고 그 열의 또한 다른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지만 중등교육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민학교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가 말로 당시로서는 지난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광복이 되면서 우도는 해마다 80여명의 국민학교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1949년에 연평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다소나마 중등교육에 대한 바람을 만족시켜보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고등공민학교란 공민학교의 補修科를 토대로 발전시킨 것으로 1949년의 교육법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즉 “일반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초등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일종의 중학교에 준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등공민학교는 특별학제의 일환으로 공민적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이었으며 형식적인 의미의 학교교육기관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교육 기관으로서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 우도의 주민들은 진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도의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高泰柱 등이 중학교 설립기 성회를 조직함으로써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원래 중학교 설립은 고향이든, 타향이든, 혹은 이국이든 우도출신 모두의 숙원

이였기에 일단 기성회가 발족되자 그에 대한 성원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일단 중학교의 부지가 고향에서 마련된다면 설립자금은 제일연평리 향민들이 책임지겠다는 약속 아래 중학교 설립을 위한 행보를 내딛게 되었다.



학교입구에 세워진 연평중학교 설립 공덕비

당시는 아직 韓·日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우도출신 金 麟五가 부산에서 선장을 하던 관계로 그를 중간 연락책으로 하여 학교 설립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성오는 일제말기 해녀투쟁을 조종한 혐의로 구속되어 3년 6개월 동안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던 우도 출신의 지사로서 일본의 향민들에게나 고향 사람들에게나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간연락책으로서는 가장 적격이었던 것이다.

고향에서는 학교부지 마련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수월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태주, 김필환, 강용전 등이 부지확보를 위해 마을 지주들의 후원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결국 토지를 무상으로 회사받게 되었다. 그 무렵 일본에서도 중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금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가 하는 것이었다.

재일항민들은 高元河나 고태주로 하여금 수금 책임을 맡기를 원하였지만 그들도 이 일로 인해 주민들간에 반목이 생길 우려를 염려하여 그 책임을 수락할 수가 없었다.

결국 중간연락책이었던 김성오가 그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김성오는 재일항민들에게 학교 설립자금을 받은 뒤 부산에서 학교 신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구입된 재료들을 신인홍 등이 통통선을 이용하여 우도로 운반함으로써 연평중학교 설립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학교의 설계는 공병대 출신이었던 강용전이 담당함으로써 제반 계획이 성안되었는데 이외에도 그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설립에 진력하였다.

그런데 학교 설립자금은 비단 재일항민들만 후원한 것은 아니어서 고태주나 김성오는 자금 마련을 위해 각 지역의 고향출신 인사들과 접촉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부산에서 한천사업을 하던 김하석을 만나 고향의 교육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하자 일정액의 성금 회사를 구두로 약속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금은 보내주지 않아 학교설립 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이렇게 부지가 마련되고 기자재나 자금이 마련되어 학교설립이 본격화됨으로써 주민들도 공동부조 차원에서 출력을 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들이 담당하였지만 자재를 등짐으로 운반하는 일, 석축을 쌓기 위해 등짐으로 돌을 운반하는 일, 울타리를 만드는 일, 운동장을 고르는 일 등은 모두가 주민들 몫이었다.

우도의 8개동 단위로 일정하게 책임량을 할당하여 자발적인 衆力을 유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자발적인 주민 출력은 제주도의 제반 학교설립 운동에서 볼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교육전통으로서 현재 제주도의 역사가 오랜 학교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연평중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설립이 성사될 무렵 재일연평리 출신 鄭贊治 등이 이른바 연평중학교 증축기성회를 조직하여 또다시 성금 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재일동포들이 고향의 학교설립을 후원했던 예는 제주도의 경우 비교적 많은데 백적간두의 생활에

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고향의 敎育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제주도 敎育의 역사에서 참으로 가치있는 전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도의 경우는 설립기성회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이어 스스로 중축기성회를 조직 또다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예는 가히 찾아보기 어려운 헌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사는 당시 사정으로 자격교사 충원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과목들은 무자격이긴 하지만 우도 출신 가운데 유사한 교과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 유치하여 고향의 敎育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미군부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어교사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인데, 이를 계기로 그들도 정식으로 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일에는 고태주의 열의가 남달랐다.

## 제 2 절 60~80년대의 연평국민학교와 “기성회바당”



초등학교 전경

연평국민학교는 1962년 3월 6개학년에 12학급을 인가받게 되는데 이러한 12학급 체제는 1988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만 26년에 이르도록 연평국민학교의 규모는 12학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70년대만 하더라도 연평국민학교의 재학생 평균수는 600여명이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500여명으로 하락하고 80년대 중반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하락 88년에 이르기까지는 300여명을 유지하는 실정이었지만 12학급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결국 89년부터는 11학급으로 1개 학급이 감축되었고 90년에는 9학급, 91년에는 재학생수 200여명에 7학급 규모로 하락되었다.

따라서 연평국민학교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는 7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재학생 평균수가 600여명에 남녀 학생의 비율이 1 : 1 수준이었으며 교사 수는 평균 13명이었다. 제 2의 개발의 연대라고 일컬어지는 70년대는 국가적으로 초등교육의 개선의 국가발전과의 관련성 속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었으며 특히 義務教育施設擴充特別會計의 운영에 힘입어 초등의무교육의 운영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던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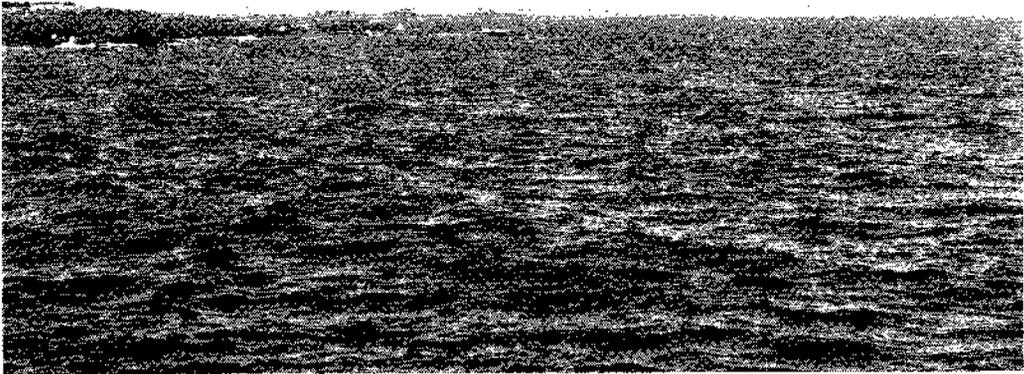
70년대 연평국민학교의 분위기도 시대적 조류에 힘입은 바가 컸다. 재학생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자 71년 9월에 슬래브로 2개 교실을 증축한 데 이어 72년 10월중에는 슬래브 3개 교실을 증축하고 또한 변소와 창고를 증축하였다. 연이어 73년 6월에도 슬래브 2개 교실을 증축하였는데 이렇게 3년 연속적으로 교실 증축사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주도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예였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1967년에 제정된 島嶼僻地教育振興法(법률 제1870호)과도 관련이 깊다. 동법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종의 적극적 等差政策으로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들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책의 표현이었다. 교육시설, 교재교구, 교과서의 무상공급, 교원사택, 교원 인사면의 특혜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펴으로써 이들 낙후지역의 의무교육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학교운영 재원 문제도 관심거리였는데 1970년

2월 문교부는 학교 육성회 운영 지침 및 준칙을 발표하고 해방 이후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의 형태로 존속해오던 것을 육성회로 제도화시켰다.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의거하여 72년부터 연차적으로 육성회비의 국고부담을 추진하였는데 육성회의 재원은 주로 학교 육성을 위한 큰 재원이 되었다.

그런데 우도의 경우는 학부형 개인의 회비수입에 의존하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학교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설립되어 운영비를 각 호당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후일 학부형회로 전환되어 같은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도의 경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해안 공동어장의 일정한 지역을 소위 “기성회 바당”이라고 이름하여 공동노력으로 공동출자하는 형식으로 그 지역을 관리함으로써 학교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70년대 기성회 바다 전경

이러한 “기성회 바당”은 1979년에 서울 등 6대 도시를 제외하고 국민학교에서의 육성회비가 폐지되기예 이르기까지 10여년 간이나 운영되었고 학교운영회 자

급모금이 금지된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결과된 재원으로 공금을 마련 부락공동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이것은 성산을 온평리가 학교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안가 일정 지역을 “학교 바당”이라고 명명하여 운영하였던 예와도 비슷한데 그러나 10여년에 걸친 장기간의 운영은 우도의 경우에 한하며 이는 우도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반증하는 실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온평리의 ‘학교 바당’은 그 역사가 해방직후부터 오래되었지만 우도의 그것은 기성회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운영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성회는 종래의 사친회가 전환된 것으로 부족시설 확충과 학교운영비 지원에 큰 기여를 하였고 1970년 육성회의 발족으로 폐지되었던 것인데 우도의 기성회 바당이라는 용어는 70년 이후에도 명칭의 변경없이 통용되어 왔다. 당시의 중등교육비의 70%가 사부담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성회 바당이 우도 교육재정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도 주민들의 열정은 연평국민학교의 ‘운동회’ 행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당시의 운동회는 국민학교의 행사라기보다는 농한기를 빌어 펼쳐지는 우도주민 전체의 연례 잔치였다. 더욱이 격리된 지역적 여건 때문에 달리 주민 전체가 어우러질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운동회에 대한 주민 참여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도 주민들은 학교 일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금을 모아 학교운영비로 기탁하기도 하였다.

대개의 경우 운동회는 연례행사로서 일정한 날이 지정되었지만 이를테면 교실을 증축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경우도 있어서 마을의 교육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집단적인 후원과 연대 속에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웅변하는 예가 되기도 했다. 이는 교육사적 전통에서 볼 때 자신의 손으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는 獨立學校의 정신이 반영이기도 하다.

70년대 연평국민학교의 졸업생 수는 한해 평균 90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많은 상황이었는 데 이들 가운데 상급학교 진학자는 70년대 초반 하더라도 평균 60%수준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79년의 경우에는 무려 98%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간단히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학급수	학생수(계/여)	졸업자(계/여)	진학자(계/여)	진학평균
70	12	625/320	94/39	62/22	65%
71	12	638/330	83/37	53/16	64%
72	12	626/313	100/58	70/32	70%
73	12	624/317	109/51	84/33	77%
74	12	601/304	103/51	83/33	81%
75	12	619/312	93/42	81/33	87%
76	12	616/308	103/58	89/45	87%
77	12	634/326	96/50	86/42	89%
78	12	628/326	92/49	82/41	89%
79	12	604/324	107/54	105/51	98%

(제주교육통계연보 참조)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자가 확대된 것은 1968년에 결정 공포되어 1971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中學校無試驗進學政策과 무관하지 않는데 중학교무시험정책은 국민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비롯하여 소기의 정책목표를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의 기화확대와 보편화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국민학교는 여타의 제주도 읍, 면의 학교 사정과 마찬가지로 규모면에서는 점차 그 활기를 잃게 된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되어 81년부터는 도서벽지진흥법에 의거하여 시범급식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또한 같은 해에는 병설유치원이 설립 인가되어 3월에 개원을 하게 된다. 84년에 2층 2개 교실 및 계단실을 증축하게 되고 85년부터는 특수학급 1개를 설치하게 되고 학교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세식 변소 또한 이때 신축하게 된다.

80년대 들어서도 계속된 시설사업으로 교실수는 늘어난 대신 재학생수는 70년대에 비해 100여명이나 감소함으로써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70년대는 약 50여명이었으나 80년대 초반은 40여명, 후반에는 25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도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移村向都의 경향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실례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듯이 89년에는 드디어 종전의 12

학급 체제에서 11학급 체제로 1학급을 줄이게 되고 90년에는 9학급, 91학년에는 7학급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결국 1개 학년당 1학급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는 말인데 93년의 경우 특수학급 1개를 포함 7개 학급으로 재학생수는 190여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5명 꼴이 된다. 이러한 추세로 연평국민학교가 분교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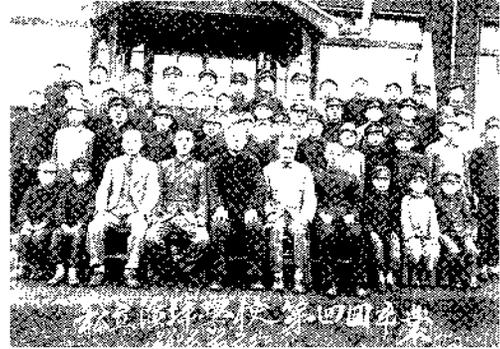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 전체의 국민학교 학생수가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된 시점이 1983년으로 우도의 경우도 83년까지는 500명 수준이던 재학생수가 84년부터 400명 수준으로 감소를 보임에 따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학생수의 감소 문제는 우도의 경우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후부터 제기될 문제는 교육의 규모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80년대 들어 급격히 부상하게 된 것이 이른바 유아교육 문제이다. 80년대 들어 고조되기 시작한 유아교육 정책에 힘입어 연평국민학교 병설유치원도 개원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재원생수가 80년대는 30명에서 40여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는 20여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간접적으로는 산아제한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무래도 移村向都의 추세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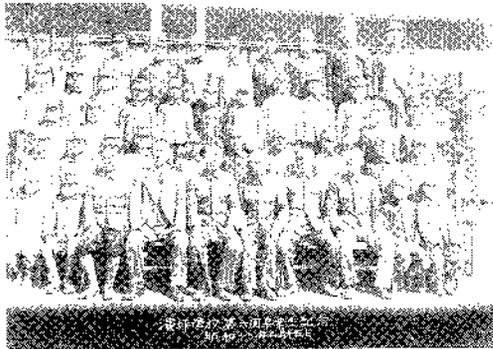
## 연평초등학교 관련사진



연평심상소학교 제3회 졸업



사립연평학교 제4회 졸업



연평학교 제6회 졸업생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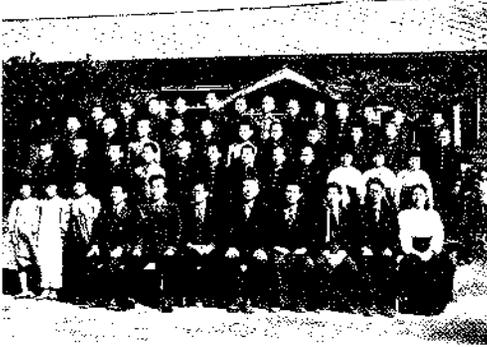
연평공립국민학교 제3회 졸업기념 (1948.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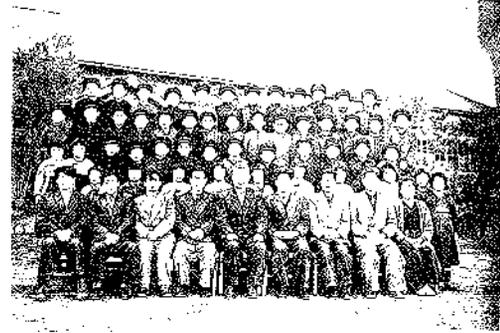
제14회 졸업기념 (1952. 3. 30)



제15회 졸업기념 (1953.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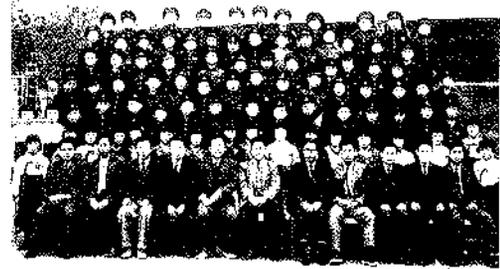
제16회 졸업기념 (1954. 3. 22)



제19회 졸업기념 (1957)



제22회 졸업기념 (1960. 3. 16)



제23회 졸업기념 (1961. 3. 13)



제24회 졸업기념 (1962. 2. 16)



제25회 졸업기념 (1963. 2. 15)



제26회 졸업기념 (1964. 2. 17)



제27회 졸업기념 (1965. 2. 23)



제28회 졸업기념 (1966. 2. 19)



제29회 졸업기념 (1967. 2. 20)



제30회 졸업기념 (1968. 2. 17)



제31회 졸업기념 (1969. 2. 14)



제33회 졸업기념(1971. 2. 10)



제34회 졸업기념(1972. 2. 19)



제35회 졸업기념(1973. 2. 19)



제36회 졸업기념(1974. 2. 18)



제37회 졸업기념(1975.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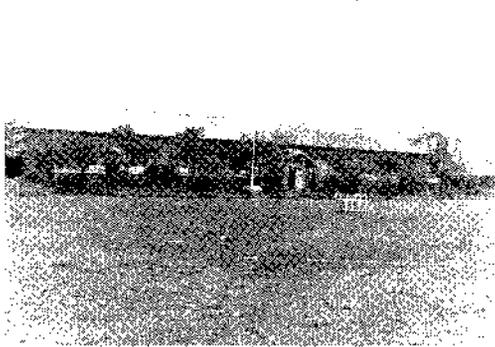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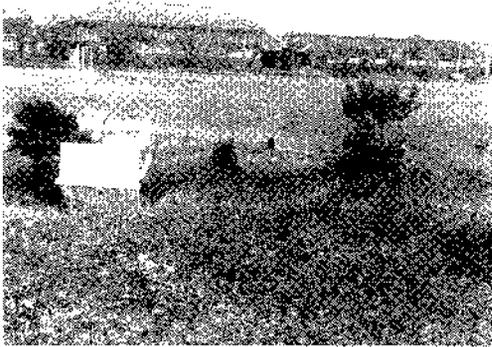
제38회 졸업기념(1976. 2. 14)



제39회 졸업기념 (1977. 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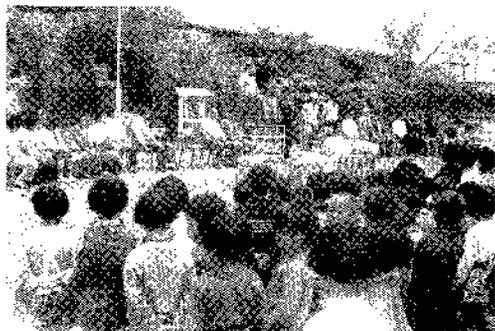
제40회 졸업기념 (1978. 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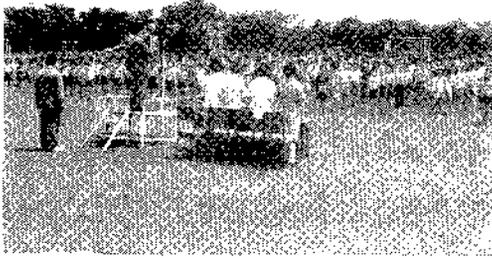
구교사 전경



정일권 국무총리서 품금기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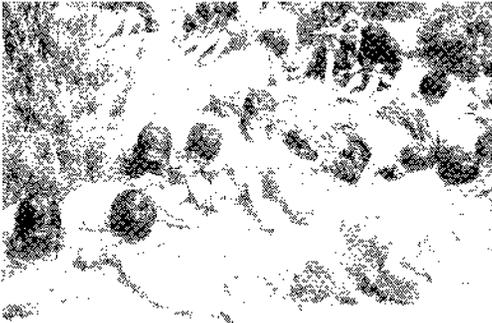
도서학교위문단이 학교를 방문 위문품 전달 (1972. 5. 29)



희망에 부푼 입학식



수학여행(1976. 5. 27)



사 생 대 회



즐거운 가을 운동회



마을인길 청소



퇴비증산은 우리 부모님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학비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풀을 모으고 있다. (79. 11)

### 제 3 절 연평중학교의 변천

1954년 5월 22일에 3학급 체제로 설립인가를 받고 동년 6월 20일에 개교를 한 연평중학교는 그 신장세가 급격하진 않았지만 꾸준한 편이었는데 1972년도까지는 3학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재학생수가 200여명을 상회하기 시작한 73년도 부터는 4학급체제로 74년에는 5학급, 76년에 6학급 체제로 학칙 변경을 통해 규모있는 발전을 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6학급 체제는 1990년도까지 계속되다 91년도부터는 다시 5학급 그리고 92년에 4학급, 93년에 3학급 규모로 줄어들게 되었고 재학생수도 100여명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연평중학교 전경

시설확충은 1958년에 2개 교실을 증축한 것으로 그치다가 재학생수가 300여명을 상회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던 1983년을 기점으로 84년 12월에 무려

6개 교실을 신축하게 된다. 83년, 84년, 85년은 연평중학교의 재학생수가 가장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로서 84년의 교실 신축을 통해서도 적절한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86년에 1개 교실을 증축하는 등 학생수의 증가에 발맞추어 시설 확충이 서둘러져 왔다. 이는 연평국민학교의 재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70년대였음을 감안해볼 때 인구과고의 당연한 반영이었다.

70년대 연평중학교의 한해 졸업생수는 평균 65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대개 4 : 1 수준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약 50% 정도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였다. 상급학교의 진학자는 대부분이 남학생으로 여학생의 평균진학률은 여자 졸업자의 20%도 채 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도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에 존재했던 관계로 취학을 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고등학교 진학의 경우는 그 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학교 졸업자의 1/2수준이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는 형편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정도가 매우 심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1 : 1 수준이었던 남녀 비율이 중학교에서 4 : 1 수준으로 성비차가 심해진 이유나 중학교 재학 여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저조한 이유 등은 달리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수의 여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의 진학 보다는 “물질”모서의 현실적인 길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도 경제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역할의 막중함을 대변하는 실례이기도 하다.

그같은 형편은 1979년부터 두드러지게 완화되는데 79년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6학년 체제로 재학생수는 262명(여학생128명)이었으며 졸업생 89명(여학생48명) 가운데 상급학교 진학자는 76명(여학생37명)으로 진학률이 평균 85%를 상회하고 특히 여학생의 그것은 77%에 입각하였다. 이것은 전년 대비 평균 25%정도의 신장세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무려 55% 정도의 급격한 신장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이 추세를 도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학급수	학생수(계/여)	졸업자(계/여)	진학자(계/여)	진학평균(남/여)
73	4	226/ 90	51/19	25/ 5	49/26%
74	5	238/ 98	60/19	19/ 3	31/15%
75	6	241/ 96	70/32	34/ 7	48/21%
76	6	239/103	83/35	34/ 4	40/11%
77	6	255/123	69/22	42/ 7	60/31%
78	6	257/130	74/32	42/ 6	56/18%
79	6	262/128	89/48	76/37	85/77%

(제주교육통계연보 참조)

여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의 급격한 신장세는 소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산업체부설학교의 진학에 따른 결과인데 특히 우도의 경우는 일찍이 부산과 관련이 깊었고 부산지역에 많은 우도 주민들이 터전을 잡고 있었던 관계로 이 지역의 산업체부설학교에 많은 학생들의 진학이 더욱 용이했다.

정부는 1976년 말에 교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산업체에 중고등학교를 부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77년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체에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부설 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1979년에는 1,108개의 산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여 40,000여명의 근로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인데 이러한 실업교육의 추세에 많은 우도출신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과거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우도의 여학생들의 경우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물질을 선택했던 것인데 이제 산업체부설학교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적 욕구도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55%를 상회하는 여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우도의 독특한 사정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학교교육 기회를 보상에 준다는 정부의 시혜적 차원에서 실시된 산업체부설학교는 교육과정과 내용이 근로청소년의 실제와는 동떨어져 있거나 회사에서 취학을 미끼로 근로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 등의 문제점도 많았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이유에서 일단 우도의 여학생들에게는 교육적 폐쇄회로를 열어주는 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상급학교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당했던 우도의 여학생들에게도 그 문호가 개방되게 되었다.

도내의 상급학교는 대개 남학생들이 진학했으며 많은 수가 가까운 성산수산고등학교에 적을 두었다. 성산수고에서는 우도 출신의 학생들을 위해 납입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대신 우뭇가사리나 톳 등이 채취되어 마을 주민들이 목돈을 만지게 될 무렵 납입금을 해결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주민들과 합의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예를 들자면 대정 지역이 감자 수확에 따른 판매시기를 통해 납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유사한데 이 모든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당대의 삶과 무관할 수 없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실감케하는 일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상급학교의 진학에 따른 우도 주민들의 교육적 부담은 매우 컸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앞서서도 보았듯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특히 여학생의 그것이 저조했던 것이고 따라서 우도 주민들은 그러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산업체부설학교와 같은 기회를 적극 이용하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학교 재학 때문에 제주시내 등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클 수밖에 없었다.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 인문계보다 실업계를 많이 지원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도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득원으로는 풍부한 해산물로서 여러 해산물들 가운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뭇가사리는 특히 중요한 소득원이었다. 우뭇가사리 철에는 손이 아쉽기 때문에 자연 집안 식구 모두가 동원되기 마련인데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를 조퇴하는 게 상례였다. 그렇다고 학생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어서 우뭇가사리가 풍부한 지역의 학생들은 조퇴를 하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형편이라 정상적인 교육이 문제되었다. 이같은 조퇴 문제는 최근까지도 논란되던 문제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공부할 과제의 구조(academic task structure)와 함께 사회적 참여구조(social participation structure)가 동시에 논의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전자의 구조만을 강요하는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파행성은 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뭇가사리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참여구조 요인에 대해 학교가 배타적이 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오히려 “감자방학”이나 “벌초방학” 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의사소통 참여구조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연하게 화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보다는 강경한 교육전략을 고수했는지 의문이다.

우도 밖에서 상급학교를 다니던 여학생들은 우뭇가사리 철에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채취 작업을 도왔는데 토요일 방과 후에 귀향하여 일요일까지 작업을 한 뒤 월요일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빌린 배를 이용하여 다시 등교를 하던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산물 채취가 우도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실감케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해산물을 원천으로 하여 교육비를 부담하기는 우도 전체가 겪는 형편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물질’이 자연 큰 몫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질은 우도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다도해 전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출가도 장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여성들의 끈기나 해녀들의 강인함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도의 여성들은 바다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처지에서 더욱 억척스러웠던 것이고 그러한 억척스러움의 결과로 우도의 교육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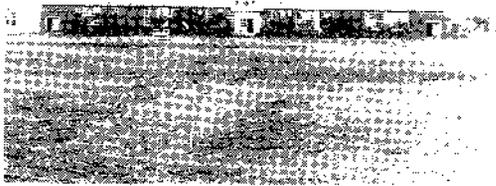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평중학교가 그런대로 안정되었던 시기는 80년대였다. 80년대는 재학생수도 안정되게 유지되어 학급당 인원수도 1개 학년 2개 학급규모로 평균 40명 수준이었다. 80년도 우리 나라 중학교의 학급당 수요인원이 평균 66명이었고 정부에서는 87년에 57명 수준으로 감축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연평중학교의 학급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안정세는 급격히 와해되면서 재학생수도 격감하고 그에 따라 학급수도 종내는 1개 학년에 1학급 40명 규모로 감소된다. 이것은 移村向都의 당연한 결과로서 그러한 추세는 우려할 만큼의 가속도를 갖고 있다.

## 제4절 맺 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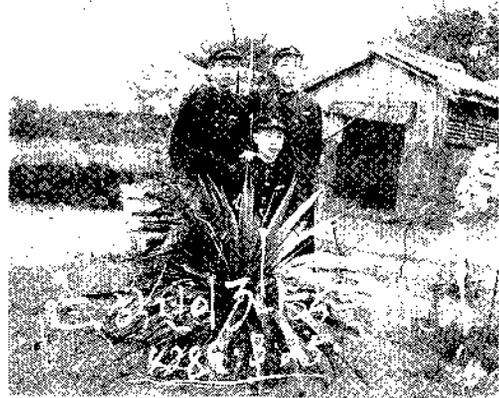
우도의 敎育전통은 제주도의 올곧고 내용찬 敎育전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우도의 敎育은 그 전통이 역사적으로 풍부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우도에 사람들이 밭을 디딘 시기부터 그 험난했던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도의 敎育은 역사만들기(Geschichtemachen)라는 명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말이 된다. 특히 학교설립을 둘러싸고 응변한 우도 주민들의 공동체적 강고성은 제주敎育 전통의 귀감이며 제주敎育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移村向都 후기산업사회의 대세는 우도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도 敎育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 그 모든 시간대를 한꺼번에 쇠락케 한다는 데 치명적이다. 분교 또는 폐교로 진행되는 학교규모의 회실에 따른 걱정보다는 그 동안 우도가 우직하게 견지했던 敎育전통의 상실이야말로 가장 심대한 도전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몫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도 주민들과 더불어 모두의 기꺼운 부담이 되어야 한다.

## 연평중학교 관련사진



구교사 전경



1956년 학생모습



1957년 학생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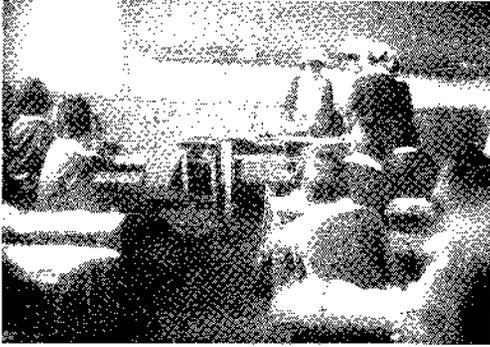
1957년 기물부 학생



1957년 학생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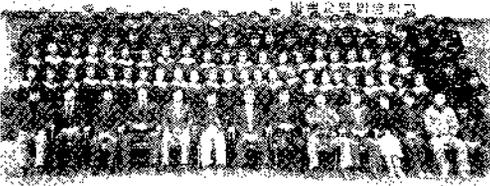
1957년 학생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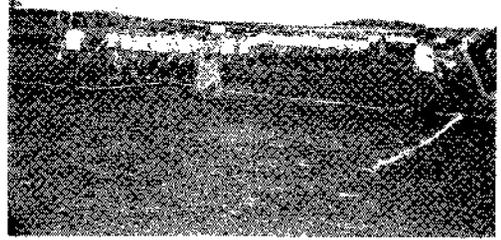
가사실습 풍경(1981년)



교실내 풍경



연평중학교 제26회 졸업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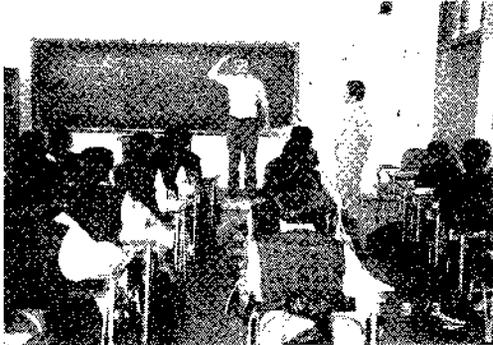
교내체육대회(분열)



교내체육대회(응원)



교내체육대회(씨름)



원어민 1일교사



제24회 졸업식장에서 넝쿨모임회장상 시상



장한어머니상 시상



제37회 졸업식시 동문회장상 시상



청소년연맹 누리단 빌대식



자연보호회 활동

# 제 3 장 行 政

## 제 1 절 概 觀

### 1. 牛島面의 位置 및 自然



우도항에서 본 설머리 전경

牛島는 濟州道의 ‘섬중섬’으로 11개의 자연마을이 해안선을 따라 각각 洞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본 섬 중앙에 中央洞이 있어 모든 공공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다. 마을에서 “중앙에 간다” 하면, 面 單立의 원로회의,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청년회, 부인회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里 單立 대표들이 중앙동에 모이거나, 농협, 수협, 우체국, 보건소 등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마실가는 일’로 받아들인다. 새로 생긴 中央洞은 모든 마을과 통한다. 따라서 牛島 面의 行政은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인 마을과 行政의 中心地인 中央洞을 잇는 11개 마을의 疏通關係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도면의 행정구역은 4個里, 12個 자연마을, 24個 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도면은 濟州島의 동쪽 끝에 위치한 제일 큰 섬이다.

우도면은 ‘우묵개 성창(하우묵동 포구)’에서 서쪽 구좌읍 종달리까지는 2.8km, ‘우도 나루’에서 남서쪽 성산항까지는 3.8km 떨어진 海上, 東經 126° 58′, 北緯 33° 29′ 지점에 位置하고 있다. 도항선을 타면 10分 거리지만, 물살이 세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출륙이 금지된다. 氣象臺 자료에 의하면, 연중 최고 기온이 36° 4′, 최저 기온이 -4℃로 年平均 氣溫이 16℃이며, 연평균 降雨日數도 제주시 쪽의 102일보다 37일 많은 139일이며, 降雨量은 1,800mm이며, 바람이 잦아 겨울에 눈이 잘 쌓이지 않는다.

우도면은 완만한 경사의 넓은 경지를 가지고 있다.

牛島面의 地勢를 ‘물소가 머리를 내민 모양’ 즉 牛頭型, 또는 ‘소가 누운 형국’ 이니 臥牛型이라 하기도 한다. 이 섬 南端에 해발 132m의 牛島峰이 솟아 있고, 깎아지른 듯한 斷崖가 奇異한 岩壁을 이룬다. 속칭 ‘광대코지’라고 하는 이 부근에는 해식동굴이 형성되어 햇빛이 동굴 속을 비추면, 신비로운 광선의 조화에 의해 소위 ‘晝間明月’이라는 絶景을 이룬다. 이 우도봉을 기점으로 傾斜가 북으로 완만하게 떨어 섬 전체가 굴곡이 없으며 평탄하고 단조롭다. 그래서 牛島

1. 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와 같다.

· 영일동	망김항중(남, 81세)	· 상교수동	김윤일(남, 82세)
· 서천진동	신인홍(남, 74세)	· 하우묵동	오영돈(남, 68세)
· 영일동	여성화(남, 62세)	· 비양동	강기현(남, 69세)

는 ‘물에 떠있는 들판’이란 뜻으로 1900년부터 ‘演坪’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생겼다. ‘演坪’, ‘소섬’ 또는 ‘牛島’라는 지명은 이러한 地勢를 반영하고 형용한 이름일 것이다. 李元鎮의 「耽羅志」 濟州牧 山川條에 보면,

牛島는 주위가 50리로 濟州牧의 동쪽 旌義縣과의 경계에 있다. 인마가 시끄럽게 떠들면 문득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섬 서남쪽에 굴이 있는데 작은 배 한 척이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들어가면 5,6척을 감출 수가 있다. 그 위에 있는 큰 암석이 집과 같아서, 마치 햇빛이 떠서 빛나면 별빛이 황홀 찬연하게 즐지어 늘어선 것 같다. 그 곳은 공기가 몹시 차가워 머리털이 쭈뼛해진다.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한 龍이 사는 곳”이라 한다. 7,8월 사이에는 어선들이 다니지 못한다. 나갔다가는 큰 바람이 일어나고 천둥이 쳐서 나무가 뽑히고 곡식을 손상시킨다. 그 위에는 닳나무가 많다 (牛島 周五十里 在州東旌義之境 人馬喧則便有風雨 島之西南 有竇可容一小船稍進則可藏船五六艘 其上大石如屋 如有日光浮耀 星芒燦列 氣甚寒涼毛髮竦然 俗稱神龍在處 七八月間 漁舟不可往 往則大風雷雨 拔木損禾 其上多楮木

1930년에 발간된 「濟州島便覽」에 보면, “牛島는 旌義面城山浦의前大洋三十里許에在한바島의模樣이臥牛와恰似한故로牛島라名稱하였다한다周圍가約三十里이니元來無人孤島로써國有牛馬와牧畜場이러니距今八十七年前憲宗八年(西紀千八百四十三年)壬寅에비로소主民함을許可하였으니現在家屋數가五百餘戶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2. 牛島 住民의 生活과 經濟

우도면은 豊富한 漁場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 마을이 형성된 것이며, 마을은 豊富한 海産資源에 기대어 살아간다. 농경지 역시 취락 가까이 흩어져 있다. 우도면은 南北 길이 약 4km, 東西 길이 약 3km이며, 1996년도 우도면 업무보고에 의하면, 면적은 6.05km<sup>2</sup>로 북제주군 면적의 0.8%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지면적은 4.4km<sup>2</sup>(73%), 林野는 0.9km<sup>2</sup>(14%), 기타 0.75km<sup>2</sup>(13%)이며 戶當 耕地面積은 0.7ha이다.

그리고 가구 수는 624가구(농어가 90%)이고, 인구수는 2,007명(남 47%, 여 53%)로 우도면민 대부분이 半農·半漁의 농어민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점이 특징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것은 제주도 전체가 보편적이지만, 특히 우도면은 미역·우뭇가사리(천초)·뿔·감태·문어·해삼·전복·소라 등 1種

共同漁場에 漁산물이 豊富하여, '물길(潛嫂業)'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도면의 海村의特性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표 1) 우도면의 가구 및 인구의 변화

연 도	가구수	인 구 수			호당인구 평 균	비 고
		남 자	여 자	계		
1929년	441	1,081	1,283	2,364	5.4	84.3
1968년	682	1,621	2,015	3,636	5.3	80.4
1973년	687	1,480	2,070	3,550	5.2	71.5
1986년	695	1,582	1,753	3,335	4.8	90.2
1992년	651	1,398	1,609	3,007	4.6	86.9
1993년	621	1,032	1,211	2,243	3.6	85.2
1994년	622	1,020	1,167	2,187	3.5	87.4
1995년	617	988	1,122	2,110	3.4	88.1

(표 2) 마을별 인구현황

○ '95. 12. 31 현재

마 운 별	동 별	세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서 팽 리	상우목동	28	85	44	41	
	하우복동	42	208	98	110	
	중앙동	45	111	58	53	
	소 계	115	404	200	204	
천진리	동천진동	76	245	120	125	
	서천진동	60	176	81	95	
	소 계	136	421	201	220	
조일리	영일동	70	238	115	123	
	비양동	84	279	130	149	
	소 계	154	517	245	272	

마을명	동명	세대수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오봉리	주흥동	46	139	62	77	
	삼양동	36	129	63	66	
	진흥동	47	150	60	90	
	하교수동	37	127	59	68	
	상교수동	34	108	52	56	
	소계	200	653	296	357	
총계	12개동	605세대	1,995명	942명	1,053명	

우도면 주민들은 半農·半漁의 經濟生活을 한다. 그러나 牛島面은 4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풍부한 漁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도면의 주요 산업은 迎日洞을 제외한 경우, 主漁 副農, 즉 어부들이 여장과 해녀들이 바다 밑에서 거둬들이는 소득이 주 생활원이며, 여가를 통하여 밭일을 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迎日洞은 耕作地가 다른 마을에 비해 넓고, 浦口의 立地條件이 좋지 않아 협소하기 때문에 漁船이 적고, 넓은 어장을 가지고 있으나 허너도 비교적 적다. 이 마을은 농사를 주로 한다.

우도면의 戶當 平均 耕作面積은 0.7ha에 이르므로 그나지 비참은 편은 아니지만 농토가 척박하여 식량을 自給自足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 쌀 자루를 들고 細花里 장터를 다니던 목이라 하여 '찰리복'이란 지명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식량사정이 좋지 않고 가난했던 한 마을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우도면 주민들은 渡航船을 이용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終達里를 주요 거점으로 하여 天津洞, 牛目洞, 周興洞, 錢屹洞 포구에서 風船으로 본도와 왕래하였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육지 출입이 빈번해지자 1930년대로부터 성산포항을 거점으로 연락선이 왕래하게 되었다. 지금은 渡航船이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본도와의 출입이 어려웠던 시정은 통혼권에도 영향을 준다. 우도면 주민들이 본도와 혼인을 맺는 경우는 드물고, 面內婚을 그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우도면

12마을이 친인척을 이루어 冠婚喪祭 면에서 거대한 協扶組織을 이루고 있어서, 집안의 대사를 치르는 데는 몇 날씩 걸리며 부조금의 규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만큼 면 전체가 地緣으로만 뗃어진 것만이 아니라 血緣共同體이며, 儀禮共同體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표 3〉 면민의 생활수준(1995년 현재)

가구수 : 605가구

호 당 소 득	1,300만원(연소득)	T V 보 급	605대(100%)
상 수 도	605 전 (100%)	주 택 보 급	605동(100%)
전 기 보 급	605 호 (100%)	냉 장 고 보 급	580대( 96%)
전 화 보 급	570 대 ( 94%)	농 기 계 보 급	522대( 91%)
신 문 보 급	250 부 ( 41%)		

## 제 2 절 行政의 變遷

### 1. 朝鮮 時代

朝鮮朝 牛島面의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면,

1842年 人耕許可를 얻었다.

1844年 金錫麟 進士 等 一行 人島하였다.

1900年 鄉校訓長 吳幼學 先生이 演坪으로 命名하였다는 간단한 史實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人耕許可 이전에 牧馬場이 있었으니, 牧犬 등 유동적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李元鎖의 耽羅志에 「羔圍 牛島飛陽島 俱有之」라는 기록이 있고, 淡水契編 耽羅誌 「牛島場·舊左面 演坪里에 在하니 幅圓이 五·里요, 六處에 水가 有하나 今廢」라는 기록이 있으며, 金錫翼의 耽羅紀年 속종 24년(1698년)에 보면, 「貢質馬二百餘匹放于牛島」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17세기 말에서부터 牛島에 목마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목마장의 명칭은 牛島場이며, 마소를 먹일 물이 6개소에 산재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844년 金錫麟 進士 일행이 人島하기 50여년 전부터 食水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牛島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中葉부터다. 주민들은 주로 嶺左邑을 비롯한 제주시 동쪽 북제주군에서 이주해 왔으며 城山浦 以南의 남제주군에서 移住한 경우는 드물다. 조선시대로 보면 旌義縣에서보다는 濟州牧에서 이주하였던 것이다.

## 2. 일제치하

1927년에 牛島는 단일리로서 演坪里를 2개구(1區, 2區)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1931년 2個區를 다시 演坪里로 통합하고, 統合里長制를 復活하였다.

牛島는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後海洞·天津洞·古水洞·飛陽洞·錢屹洞·周興洞·牛目洞·三陽洞 8개 자연마을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15년 牛目洞을 上·下牛目洞, 天津洞을 東·西天津洞, 1949년 古水洞을 上·下古水洞으로 나누어, 11개 마을이 되었으며, 1970년부터 中央洞이 새로 생겨 12개의 마을이 되었다. 우도의 행정 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술국치(1910년) 이후, 1927년 區長制가 생길 때까지는 강 경민장이란 분이 마을의 里政을 맡아 보았다 한다. 朝鮮朝로부터 日帝 때까지 우도면 里政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조선조에 있어서 本島 마을 행정을 보면, 마을 자치적인 공동체 조직으로서 마을 鄉會가 있었고, 이 鄉會는 ①鄉長 ②警民長 ③尊位 ④農監 ⑤譏察 ⑥洞將 ⑦任(下輩)의 체계였다. 각 所任의 職務는 아래와 같았다.

- ① 鄉長 : 덕망 있는 자로서 鄉會에서 추천되며, 마을의 長이다.
- ② 警民長 : 警民篇에 의하여 里民의 啓蒙 및 警防에 대한 事務를 담당하였다.
- ③ 尊位 : 一般庶務와 事務를 處理하였다.
- ④ 農監 : 농사에 관한 事項은 물론, 토지등금의 조사, 稅穀의 査定과 牛馬에 관한 事項까지 處理하였다.
- ⑤ 譏察 : 查察, 搜查 등 防犯에 관한 事項을 處理하였다.

⑥ 洞將：任 以下の 下輩(使喚)를 통솔하였다.

이상의 소임 중, 警民長과 尊位는 民의 추천을 거쳐 관에서 任命하였고, 農監, 譏察, 洞將은 警民長과 尊位의 推薦으로써 鄉會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우도면의 康 警民長 시절은 마을의 자치조직으로 마을의 里政을 운영하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里政期는 1927년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27년 區長制度가 생기면서 1931년 이 制度가 폐지되기까지 행정구역이 2個 區로 분할되었던 때도 있었다. 그 당시의 1, 2구를 보면,

1區는 古水洞, 三陽洞, 錢屹洞, 周興洞이고,

2區는 後海洞, 飛陽洞, 牛日洞, 天津洞이다.

歷代 區長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역대 區長 명단

1927 - 1931년

연 대	1구(고수·삼양·전흘·주흥)	2구(후해·비양·우목·천진)
1927년	1구 區長 김기석	2구 區長 김진석
1928년	강찬기	김문선
1929년	고평오	양문구
1930년	윤관중	한창도
1931년	고자화	김해일

1931년 區長제가 폐지되고 통합어장제가 도입되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고자화씨가 계속 里長職을 맡았다(김운일씨 답).

### 3. 解放 以後

1951年 7月 1日 舊左面 演坪出張所가 設置되었다.

해방 이후, 통합 里長制가 없어지면서, 각 자연마을 단위의 자치적인 이정 활

똥기가 있었다. 이 시기까지 12개 마을 전체가 합동으로 치르는 공동체적인 의례로서 마을 포제가 있었으나, 포제 등의 마을 공공행사 기금을 마련하던 演坪里 所有의 '똥비양(飛陽島)'이 소유권 이전되면서, 포제도 역시 자연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牛島의 里政은 1951년 7월 1일 구좌면 연평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다시 里長을 선출하여 마을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酬祭는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 자치조직인 향회를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後海洞 속칭 '뒷바당'은 1970년 迎日洞으로 개칭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학교 및 각 사무소가 밀집되고 家口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中央洞이다. 그 뒤, 1980年 12月 1日 舊左邑 演坪出張所가 생기고, 1986年 4月 1日, 드디어 12개의 자연취락을 중심으로 한 4個里를 1個의 面으로 하는 面昇格이 이루어져 北濟州郡 牛島面이 되었다.

우도는 면이 되면서 4개 里로 된 겁니다. 면이 된 때가 86년도인데, 76년도에 홍주 표 군수 당시 면승격운동을 한 겁니다. 전부 군에 올려 건의했고, 홍 군수가 내부부까지 상신을 했는데 좌절되었습니다.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제 면승격은 86년 4월 1일에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실감을 못했지요. 그날이 만우절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사실상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야 면으로 승격된 것이 사실임을 안 가지요(오영돈씨 답).

1951년부터 1986년 面昇格 以前까지의 演坪里의 역대 이장을 역임한 분들은 아래와 같다.

〈歷代 里長〉

- |             |                           |
|-------------|---------------------------|
| · 1대 里長 고태주 | · 8대 里長 양성하               |
| · 2대 里長 고한권 | · 9대 里長 윤유홍               |
| · 3대 里長 윤수백 | · 10대 里長 강용전              |
| · 4대 里長 김응석 | · 11대 里長 윤봉찬              |
| · 5대 里長 김필환 | · 12대 里長 오영돈 (1968-1979년) |
| · 6대 里長 정찬주 | · 13대 里長 고운팔              |
| · 7대 里長 고자현 | · 14대 里長 김승태              |

이와 같이 김승태씨를 마지막 里長으로 하여 1986년 4월 면으로 승격되었다 (오영돈씨 답).

저는 68년 12월에 이장에 부임 받아가지고 79년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이장을 하면서 뭘 목표로 했는고 하니 제가 이장하기 전까지는 이장 사는 집이 이사부소여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사부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지요. 그게 69년도였는데, 사무소를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고 하니 주민 부담은 없었지요. 제일교포 김용숙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친근데 이 부락 사람이지요. 그 분의 도움을 받아 종합식당 그 자립니다. 그 부근이 옛날 운동장 터지요. 왜 '운동터'라고 이름이 붙었는고 하니 당시 演明書堂, 演明義塾 전에 연명서당 학교에 운동장이 없었지요. 그러니 김화하라는 할머니가 牛島에 회사를 한 겁니다. '운동터'는 할머니가 회사한 건데 이장들이 소홀히 해서 이소유로 이전을 해 두지 않았던 관계로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 개인 땅이 돼버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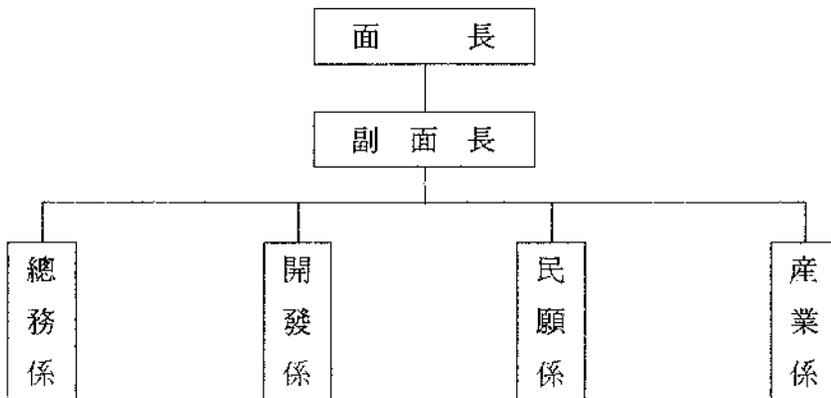
원래 중앙동이란 동은 집이 없었습니다. 육지사람 한 분이 살았는데 제가 이사부소를 짓고, 그 다음에 어촌계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민가가 늘어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군데 집이 생겼지요. 농협을 지으려고 하니 등기부 등본상에 김화하라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운동터를 준 할머니로 소섬에 연고가 없는 줄로 알았는데 제적부를 떼고 보니 전씨라고 한 사람이…… 할머니가 그 집안에 시집가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 집에 시집간 후 이 밭이 이전된 것 같아요. 운동터도 공유지지만 알았는데 난데없이 소유자가 나타나 당하게 된 거지요(오영돈씨 답).

### 제 3 절 面 行 政

#### 1. 機關 및 團體

##### 1) 面 行 政

〈機構 및 定員〉



## 〈面開發諮問委員會의 構成〉

委員長：高竝秀，副委員長：鄭萬植

委員：全尚萬，康安根，梁桂英，高龍淑，高益煥，姜哲石，申仁弘，金在玟

## 〈里長 및 部落長〉

天津里(里長：尹敬植) ———— 東天津洞(部落長：金正吉)

西天津洞(部落長：梁熙進)

西光里(里長：金勝泰) ———— 中央洞(部落長：현재 공석중)

上牛目洞(部落長：鄭萬植)

下牛目洞(部落長：鄭賢一)

五逢里(里長：高財秀) ———— 周興洞(部落長：梁順京)

三陽洞(部落長：任淳弘)

錢屹洞(部落長：康淳吉)

上古水洞(部落長：梁相浩)

下古水洞(部落長：高海哲)

朝日里(里長：金榮澤) ———— 飛陽洞(部落長：韓在弘)

迎日洞(部落長：金在玟)

## 2) 公共施設

〈표 5〉 우도면 공공시설 현황

區分	計	면사무소	학교	파출소	우체국	농협소	수협출장소	전화분국	한전주재소	등대	401레이다지대
個所	11	1	2	1	1	1	1	1	1	1	1

이 機關 가운데 燈臺·牛島파출소·401레이다지대를 빼면 모두 中央洞에 밀집되어 있다.

## 3) 教育施設

〈표 6〉 우도면 각급 학교 현황

計	中學校	初等學校	幼稚園	幼兒園
4個所	1	1	1	1
310명	102명	115명	48명	45명

1954년 開校한 演坪中學校는 현재 3학년 102명이 在學하고 있으며, 1918년 설립된 演明義塾이 1929년 演明書堂으로 바뀌고, 이 곳이 뒤에 演坪初等學校가 되었다. 演坪初等學校는 현재 7學級 115명이 在學하고 있다. 1981년 3월부터 연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인가되고, 1987년 1월부터 유아원이 인가되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4) 便宜施設

〈표 7〉 편의시설

醫 療 施 設		環 境 衛 生 施 設			食品衛生施設
保健支所	藥 鋪	旅 館	民 泊	理·美容	大衆飲食店
1	1	1	28	4	7

2. 社會團體

■ 마을 원로회의(會長 : 申仁弘)

마을원로회의는 노인회의 65세이상의 원로들이 모여 里단위로 精神訓導나 地城開發 등을 논의 한다. 마을마다 <지역개발위원회>와 <마을원로회의>가 있는데, 지역단위 개발위원회에서는 모든 결의를 하고 마을원로회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마을 원로회장은 아래와 같다.

天津里 申仁弘

西廣里 吳永敦

五逢里 姜哲石

朝日里 高龍淑

■ 우도 노인회(會長 : 申仁弘)

우도 노인회는 남녀 합하여 회원이 260명 가량 된다. 지금 노인회장과 원로회

장은 겸임한다. 노인회는 원로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노인들 사이의 친목이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어서 거기서 서로 토의도 하고, 학생들에게 한자도 가르친다.

### ■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전직 지도자, 이장, 중앙연수교육을 받은 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은 20여명 정도이고, 주 사업은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교통질서 및 각종 분야의 지역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띤 여성단체로 面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복지, 경로관계, 마을 청소 관계, 가정의례간소화 관계, 담배품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 장 김승태  
부 회 장 강순일, 김철수  
총 무 여완형  
감 사 고운팔, 한두경  
운영위원 오종영, 강철석  
고호수, 윤경식

#### 〈새마을부녀회의 구성〉

面 會 長 金恒子  
面 副 會 長 安仁淑  
面 總 務 呂惠淑  
大津里會長 金英淑  
西光里會長 梁連心  
五逢里會長 金淑子  
朝日里會長 禹敬洙

이 밖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會長: 金哲秀), 청년회, 산호조기회(會長: 金光珉), 청솔회(會長: 尹才豪), 신우회(會長: 高豪秀), 상록회(會長: 尹奉春), 백송회(會長: 呂完炯), 운봉찬목회(會長: 金鳳三), 동우회(會長: 吳永敦), 성진친목회(會長: 梁泰橋), 우도남시회(會長: 姜영길), 우도의용소방대(隊長: 禹永燦) 등이 있다. 청년회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들로 조직되어 있다. 面단위, 里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단위 청년회가 里단위 청년회를 총괄한다.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관계나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산호조기회는 기관단체 간의 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복제주unker 생탈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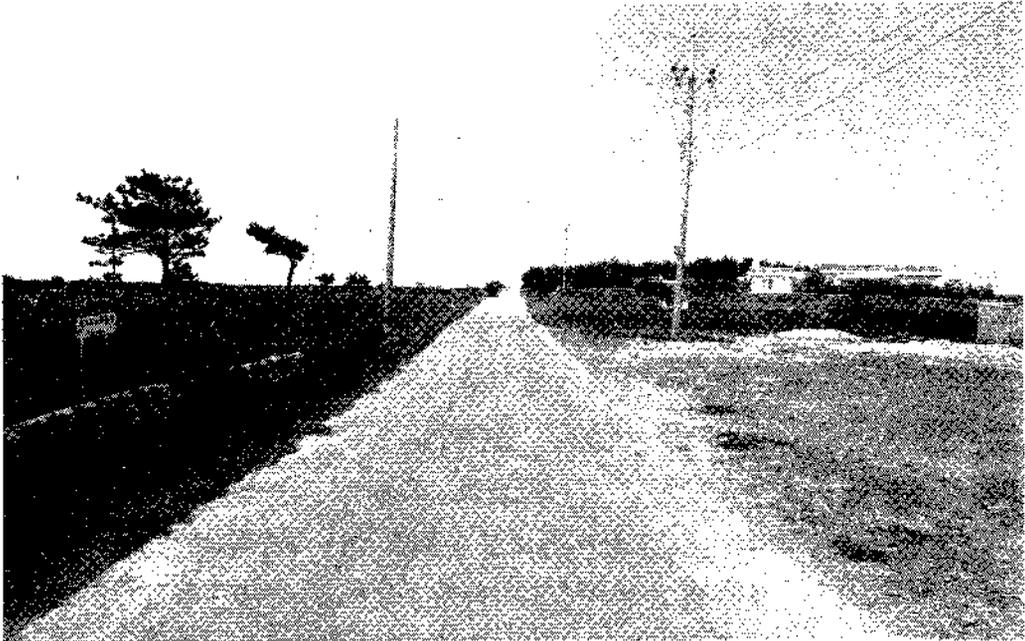
대회에 우도면 대표로 참가한다.

청솔회는 처녀·총각들의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協扶組織이다.

그리고 도외 단체로 일본, 동경, 서울, 부산, 경남, 충무, 삼천포, 제주시 등지에 우도면민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특히 부산에는 400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여 釜山牛島面民會(會長: 梁豊島)가 활발한 애향활동을 하고 있다.

## 제 4 절 開 發 事 業

### 1. 도로포장 사업



동천진동에서 주흥동까지 말끔히 포장된 도로

牛島面의 道路는 地形을 이용하여 洞里를 연결하는 小路뿐이었다. 1971년 당시 舊左面長 康共七氏가 앞장서서 東天津洞에서 周興洞까지 幅3.6m와 각 동을

連結하는 일주도로와 중앙로의 중앙에서 迎日洞 - 飛陽洞 - 上牛目洞까지의 간선도로 幅 約 2.4m의 도로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주들의 불응으로 隘路가 많았고, 도로의 굴곡선도 많았지만 本島의 개발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다.

농로확장은 7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기존도로는 4미터인데 일제치하시 개설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힘이 크긴 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고 하니 지갯짐을 썼거든요. 예, 그 다음엔 좀 발전되니까 마차, 지개, 리어카 그 다음엔 경운기가 생겼지요. 차츰 길이 넓혀지고 포장되어가니 이제는 차가 생기게 된 거지요. 포장은 71년부터 시작되었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마을은 크게 손해를 봤지요. 크든 작든 새마을 운동으로 나오는 시멘트는 500포입니다. 규모는 먼 규모인데 畝 단위 예산으로 새마을운동을 한 겁니다(오영돈씨 담).

〈표 8〉 우도면 도로 포장 현황(1995년 현재)

區 分	연 장 (km)	포 장 (km)	포 장 륜 (%)
계	63.4	35.5	56
군 도 로	12.5	11.9	95
농 어 촌 도 로	15.1	10	66
농 로	35.8	13.6	38

〈표 9〉 우도면 자동차 보유 현황(1995년 현재)

區 分	승 용 차	승합자동차	마 을 버 스	화물자동차
149대	73대	9대	5대	62대

## 2. 통신 및 전화사업

1970년 한국통신 성산포전화국 우도분국이 생겼다. 그리하여 전신 및 전화는 每日 3회(午前 8 - 10時, 正午 - 下午 2時, 下午 4時 - 6時 사이) 각각 1시간씩 연락할 수 있었다.



1970년 성산포전화국 우도분국이 설립됨으로써 본도와의 통신이 가능케 되었고 지금은 자동식 전화 740회선이 가설되어 있다(사진은 제주우도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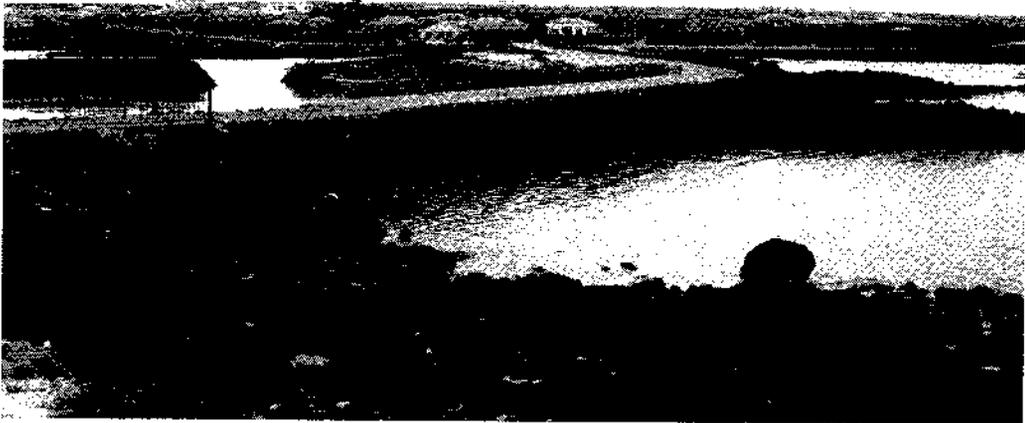
1979년 12월 27일 우도에 세화우체국 牛島분국이 설치되었다. 1980년 6월 23일 磁石式 電話 100回線이 개통되었고, 1996년 6월 自動式 電話 740回線이 증설되어 통신에 큰 불편을 덜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소섬도 문화생활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지요. 강영석 사장하고 협의해서 자가발전을 시작했지요. 그때가 75년도일 겁니다. 그런데 기계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군수한테 사정해서 한전의 기계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완전히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 주민들 부담만 컸지요. 일단 중지를 하고 한전에 운송을 했지요. 82년에야 겨우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지요(오영돈씨 담).

### 3. 飛陽洞 도리선창 築造

60여년 전, 그러니까 1930 몇 년에 최남선이란 사람이 비양동에 와 살면서 비양도(똥비양)를 잇는 다리를 놓는 '도리선창 축조사업'을 청부받았다. 목도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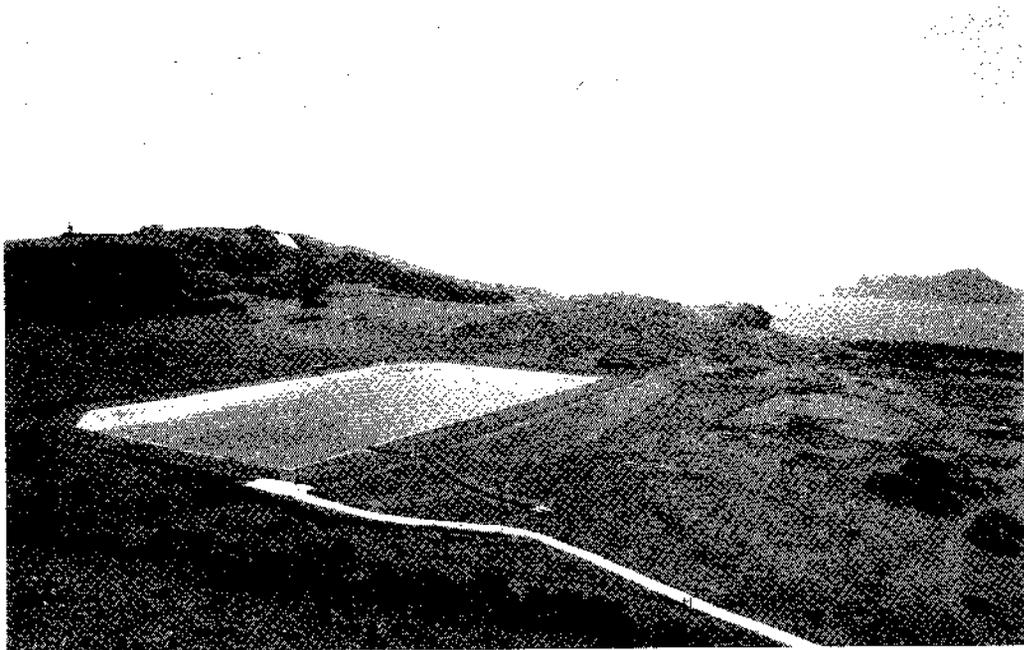
빌어 굽은 돌을 나르며 별다른 장비가 없이 이루어진 어려운 공사였다. 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청부를 맡았던 최남선 씨는 큰 적자를 보았고, 임금청산이 안 되어 인부들로부터 구타 당해 병을 얻어 죽었다. 그렇게 어렵게 축조된 것이 '도리선창'이다(강기연씨 담).



비양동 도리선창

#### 4. 1990~1992년 地域開發事業

1990년 지역개발사업은 낙도개발사업·새마을사업·기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낙도개발사업은 12억 5천7백만원을 들여 저수지 시설(50,000M/T)공사를 완공하였으며, 迂廻道路 1,939m를 포장하였고 방과제 20m를 축조하고, 하수구 421m의 시설공사를 하였다. 새마을 사업은 농로포장 100m, 待合室 주변광장 포장 1,685㎡, 하수구시설 300m, 농로확장 590m 및 저축가옥 4棟을 자력으로 정비하였고, 복지회관 1동을 지을 敷地를 선정하였고, 주택을 개량하는 데 총 사업비 1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하였다. 기타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들여 동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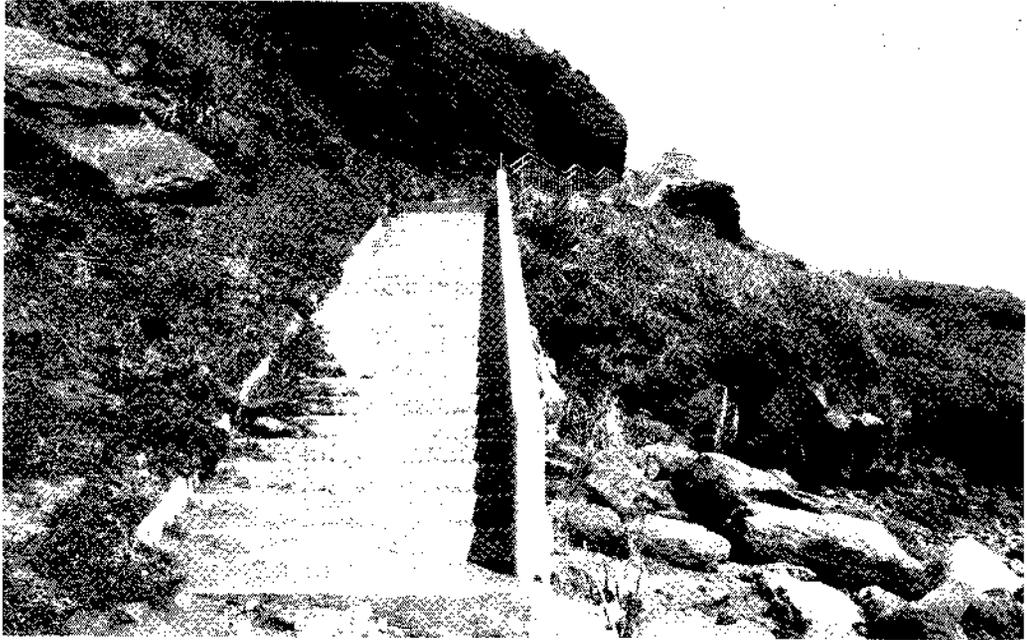
저수지 전경

향 1,244㎡ 준설공사와 쓰레기 매립장 복토작업을 하였다.

1991년 낙도개발사업은 도로포장 2.8km(336백만원), 선착장 시설 30m(100백만원)확충, 도항선 1척 건조(150백만원)에 5억8천6백만원,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 단위 개발사업과 도로포장 사업에 5천4백만원,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신설사업과 저수지 개량사업에 5억4천5백만원의 공사를 하였으며, 푸른섬 가꾸기 사업으로 까마귀쪽나무 1,500본과 돈나무 300본 그리고 무궁화 500본을 植樹하였다.

1992년 지역개발사업은 4개 분야 19건 사업비 20억 5천 8백만원을 들여 이루어졌다. 우선 낙도개발사업을 보면, 사업비 13억 7천2백만원을 들여, 소규모 어항방파제 2개 지구 36m(370백만원)를 증축하였고, 천진항 방파제보강 및 수중암 제거작업(638백만원), 저수지 보완공사로 집수정 231㎡와 1식(85백만원)의 공사와 하고수동 침수지역 120m의 하수구 공사, 곽몰래 계단시설(21백만원), 도항선 건조(150백만원) 등의 사업을 벌였다. 새마을 사업은 사업비 3억 1천만원으로 비

법정 농로포장 5개 노선 2,060m(240백만원)와 4개 마을 하수구 및 포장 500m(40백만원), 그리고 전홀동 안길 포장 300m(30백만원)를 설계 중이다. 그 밖에도 주거 환경사업으로 농촌주택 2동, 부엌·욕실 13동, 변소 50동을 개량하였다.



검물래 계단

## 5. 1993年 以後 地域開發事業

낙도개발사업은 농로포장 2,885m, 안길포장 1,469m, 하수구시설 566m에 495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욕실개량 31동, 주택개량 3동에 73백만원을 지원, 그리고 농어축산진흥기반 사업으로 잠수탈의장 2개소 시설, 인공어초사업 32ha, 수산물 공동창고 1동, 전복종패 살포 11,500미, 패조류 투석 4ha 등 800백만원을 투자하였다.

1994년 지역개발사업은 낙도개발사업으로 하우목동 방파제 축조 15m, 물양장 15m, 방파제 보강 30m, 파제벽 25m, 비양동 하수구 시설 310m에 73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포장 1,300m에 157백만원, 그리고 건강한 국

토 가꾸기 사업 6건에 140백만원,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안길포장 등 7건 1,550m에 170백만원을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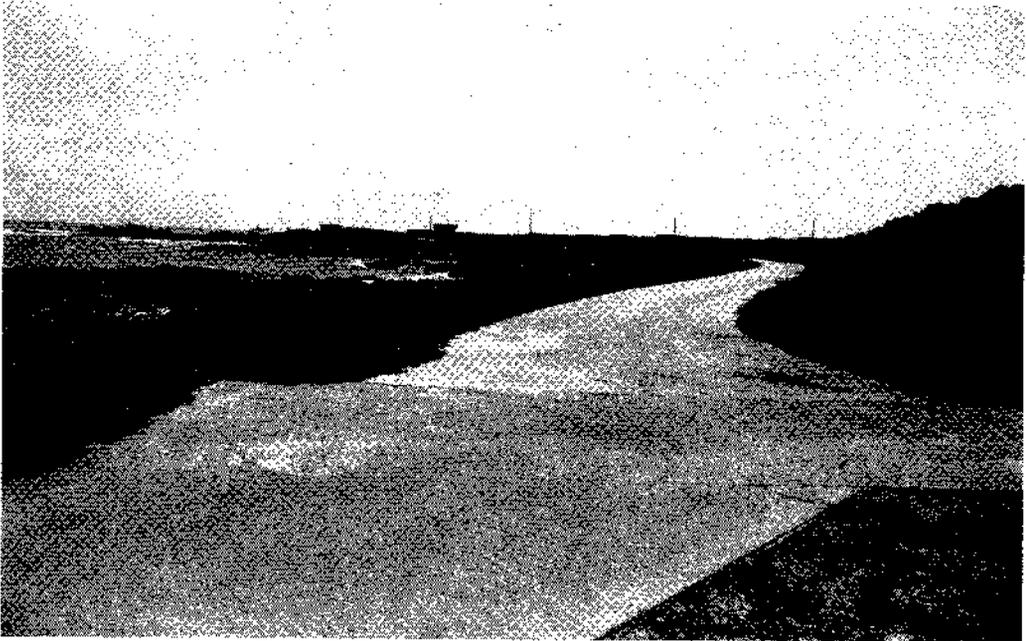


▲ 잠수탈의장 전경

하우목동 방파제 전경 ▼



1995년 지역개발사업은 낙도개발사업으로 군도 재포장 305m, 농로포장 2,135m, 진입로 포장 481m, 해안도로 포장 1,180m, 하수도 시설 982m에 53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녹화사업으로 소규모어항(포구)시설 8m, 진입로 포장 49m, 오봉리 우회도로 500m를 포장 16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5동, 변소개량 32동, 부엌개량 50동에 70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64건에 1,714백만원을 투자하였다.



해안도로 전경

〈표 10〉 소규모 어항개발 현황(1995년 현재)

港·浦口別	漁船數(隻)	計	船 着 場	物 揚 場	防 波 堤
計	46	1,218	862	281	75
東天津洞	10	58	46	12	
下牛日洞	9	292	100	146	46
飛陽洞	6	146	110	36	
迎日洞	2	120	120		
周興洞	10	175	175		
錢屹洞	5	279	229	50	
卜古水洞	4	148	82	37	29

## 6. 社會福祉事業



노인정 전경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는 해마다 영세민생활안정, 노인복지 증진, 불우가정 보호,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1995년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8천만원을 지원하여 거택보호 67가구 91명, 자활보호 11가구 22명, 의료보호 2가구 3명, 자녀학비보조 8명, 직업훈련 5명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4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노인정운영을 활성화하였고, 노인 건강진단(1회 15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260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고 노인이·비용권을 46명에게 교부하였으며 효도관광(1회 100명)을 실시하였다.

또, 1천7백만원을 들여 소년소녀가장보호(4가구 4명), 영세모자가정 지원(1가구 2명), 어려운 집 지어주기(2세대), 자매결연 확대추진(78가구 78명)운동을 벌였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년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였고 지역별 오물수거 차량을 시간제로 운행하였으며, 쓰레기 감량운동 및 분리수거와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였다.